

한

마태복음

32\*23=736

1: 1-8 Ἀσάφ, Ἀσάφ {B} "아삽" (Asaph) 이  
 관 이름이 사본들 안에 보존된 가장 큰기의 본문 형태인 것  
 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증거 자료들 (A, B) 과  
 가이사라 증거 자료들 (f<sup>1</sup>, f<sup>B</sup>, 700, 1071) 이 등방 번역본들 (C  
 cop, arm, eth, geo) 이나 때때로 제인 서방 본문들 (Old Lat  
 in 사본들, D의 누가복음에서 - D에는 마태복음의 이 부분이  
 할락되어 있다) 과 일치하여 좋은 증거를 이루기 때문이다. 더욱  
 기 필경사들은 시편기자 아삽이라는 이름 (찬조, 시 50편과 13  
 편에서 13편까지) 의 유다 왕 아사 (왕상 15: 9 이하) 와 혼동  
 되었다는 것을 관찰하면 ~~이~~ <sup>이</sup> 그 오류를 ~~규정하려는~~ <sup>규정하려는</sup> ~~경향이~~ <sup>있었다</sup>  
~~는~~ <sup>는</sup> 것이다. 결국 이런 경향이 후기 교리 본문 (비잔틴 계통  
 본문) ~~과~~ Textus Receptus 에 Ἀσάφ 지배적인 이유라 Tex  
tus Receptus 에 이 단어가 들어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대상 3: 10에 있는 족보에서 Ἀσάφ으로 읽는 사본 60만  
 제의하고 대부분 희랍어 사본들은 Ἀσάφ로 읽는다. Antig. VIII.  
~~XI~~ 3-xii. 6에서 호세푸스는 Ἀσάφος 라고 썼으며 이 책에  
 대한 후한어 번역본에 Asaph 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Ἀσάφ을 지지하는 본문 증거를 수증하고  
 있지만 Lagrange는 이런 입장을 반대하여 그의 주석에서 마  
 태 본문으로 Ἀσάφ를 썼다. 그는 주장하기를 "문헌비평은 마태  
 원저자가 구약성서를 근사해본 지를 알고 이 문헌을 작성했을  
 리가 없으며, 유다 왕의 이름이 들어갈 위치에 시편 기자의  
 이름을 ~~넣었다~~ <sup>넣었다</sup>는 ~~주장은~~ <sup>주장은</sup>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sup>그러므로</sup> Ἀσάφ이

는

는

아랍어

는 것은

주장은

그러므로

한글

내금가는

5 10 15 20 25 30  
 큰기 고대 필경사들의 오류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복음서 기자가 족보에 대한 자료를 구약에서 직접  
 가져왔다고 보라는 철자법이 틀린 곳이 있는 족보 목록들에서  
 가져온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미국 성서 공회의 신약성서  
 편집 위원회)는 필경사들의 ~~사기 (불신)~~ 수 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참조하지 않았다.~~

1:10 Ἀπίος, Ἀπίος {B} 본문 증거는 '하모스' 관련  
 득법을 지지하며 유다 왕의 이름 '아피온'을 틀린 것임을 보여  
 주는 경우로서 ~~아피온~~ 1절과 8절에서 Ἀπίος의 경우와 ~~아피온~~ 같다.  
 대상 3:14에서 대부분의 사본들은 틀린 Ἀπίων (또는  
 이것과 등등한 Ἀπίων)을 보여준다. 그러나 Ἀπίος는 A,  
 B<sup>c</sup> (B\* 과 한 순문자 사본은 Ἀπίων으로 읽는다)에 의해  
 읽혀진다. 왕하 2:18-19, 23-25 과 대하 33:20-25에 있는  
 본문 왕에 관한 이야기식 서술에서 몇몇의 희랍어 증거 자료  
 들은 Ἀπίος를 틀리게 읽는다.

Lagrange 가 Ἀπίων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Ἀπίος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에 가치를 두었다.

1:11 ἐγένετο {B} 대상 3:15-16에 있는 족보  
 라 근사시키기 위해 몇몇의 후기 대문자 사본들 (M, U, Θ,  
 Σ)은 여러 가지 다른 증거 자료들 (f<sup>1</sup>, 33, 209, 258, 498,  
 161, 954, 1354, 1604, 544, with \*<sup>v</sup>, pal, geo 등) 과 마찬가지로



남았  
다  
남았다

(약 A.D. 234년에 완성된)

66 야콥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에게 등장녀 마리아가 정혼 중이였으며, 그녀를 복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는 기록은 Armenian 번역본의 특법들이 있다. Hippolytus가 그의 Chronicle에 엮어 넣은 Liber generationis의 더욱 목적인 형태에서, 야콥이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는다. "Ioseph, cui dispensata fuit uirgo Maria, quae genuit Iesum Christum ex spiritu sancto (1955년 Rudolf Helmer에 의해 평역된 책 p.126 : "요셉 그에게 등장녀 마리아가 정혼 중이었고 그녀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셋째로, 야콥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에게 등장녀 마리아가 정혼한 중이였으며 그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란 구절은 Sinaitic Syriac A본에 의해 입증된다.

차근 다른 증거 자료들도 셋째 특법을 지지해 왔다. Timothy와 Aquila의 Dialogue에서 ~~이런~~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의 논쟁을 보여 주는 한 무명의 논문인 ~~이~~, 마 1:16이 세 번이나 언급된다. 이들 중 세 번째 인용문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본문에 애어있지 않은 인용문이다.

66 "Iakōb de ēgēnēn ten Iōsēph ton mysteudōmenon Mariān, toutous tous ēgēnēn ten Christōs o uiōs tou theou" 그리고 야콥이 요셉을 낳았고 그는 마리아에게 정혼한 중이었고

7)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두 번째 인용문은 이 족보의 개본을 인용하고 있는 끝부분에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Iakōb de ton Iōsēph, ton mysteudōmenon Mariā toutous tous ēgēnēn ten Iōsēphs o legōmenos Christōs 그리고 야콥이 요셉을 (낳았고) (그에게) 마리아가 정혼한 중이었고. (마리아

1:7-8 Ἀσάφ, Ἀσάφ {B}

“아삽”(Asaph)이란 이름이 사본들 안에 보존된 가장 초기의 본문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증거본들(ξ, B)과 가이사랴 증거본들(f<sup>1</sup>,

Next 5:11

f<sup>13</sup>, 700, 1071)이 동방 번역본들(cop, arm, eth, geo)이나 대표적인 서방 본

들(Old Latin 사본들, D의 누가복음에서: D의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탈락되어 있다)과 일치하여 좋은 짝을 이루기 때문이다. <sup>또한</sup> 더우기 필경사들은 시

편기자 <sup>83</sup>아삽이라는 이름(참조, 시편 50편과 73 - 80편)이 유다왕 “아사”

(왕상 15:9 이하)와 혼동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원문을 교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향으로 후기 교회본문(Ecclesiastical text: 비잔틴 계통의 본문)에서 Ἀσά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Textus Receptus에 이 단어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대상 3:10절에 있는 족보에서 Ἀσάφ으로 읽는 사본 60을 제외하고 대부분 희랍어 사본들은 Ἀσά로 읽는다. Antiq. viii. xi.3 - xii.6에서 요세푸스는 Ἀσάφος라고 썼으며 이 책의 라틴어 번역본에는 Asaph로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Ἀσάφ를 지지하는 본문 증거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Lagrange는 이런 입장을 반대하면서 그의 주석에서 마태 본문으로 Ἀσά를 쓰고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문헌비평(literary criticism)에 의하면 마태 원저자가 구약성서를 조사해보지도 않고 본 명단을 작성했을 리가 없으며 더우기 유다왕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위치에 시편기자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Ἀσάφ이 고대 필경사들의 오류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복음서 기자가 족보에 대한 자료를 구약

문

에서 직접 인용했다기 보다는 철자법이 틀려 있는 족보 목록들을 인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희랍어 신약성서 편찬 위원회)는 필경사의 교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참조하지 않았다.

1:10 Ἀμός Ἀμός {B}

본문의 증거자료들은 유다왕 이름 "암몬"과는 다른 "아모스"란 독법을 지지하는 경우로서 앞의 7절 8절에서 Ἀσόφ의 경우와 거의 같다.

대상 3:14절에서 대부분의 사본들은 분명하게 Ἀμών(또는 이것과 동등한 Ἀμμών)을 보여준다. 그러나 Ἀμός는 A, B<sup>c</sup>(B\*과 한 소문자 사본은 Ἀμόν으로 읽는다)에 의해 읽혀진다. 왕하 21:18-19, 23-25과 대하 33:20-25에 있는 암몬 왕에 관한 이야기식 서술에서 몇몇 희랍어 증거자료들은 틀리게 Ἀμός로 읽는다.

Lagrange가 Ἀμών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희랍어 신약성서 편찬 위원회)에서는 Ἀμός를 <sup>이</sup>증하는 외적 증거에 가치를 두었다.

1:11 ἐγέννησεν {B}

마태 본문을 대상 3:15-16에 있는 족보와 일치시키기 <sup>이</sup>해 몇몇의 후기 대문자 사본들(M, U, Θ, Σ)은 여러가지 다른 증거 자료들(f<sup>1</sup>, 33, 209, 258, 478, 661, 954, 1354, 1604, syr<sup>h</sup> with \*, pal, geo)과 마찬가지로 τὸν Ἰωακείμ, Ἰωακείμ δὲ ἐγέννησεν을 덧붙였다. 사본 작업 도중에 이 구절이 우연히 탈락되었을 것이라는 논의도 가능하지만, 이런 논의를 지지하는 외적

증거자료들이 짧은 본문을 지지하는 외적 증거자료들(  $\aleph$ , B, C, E, K, L, S, V, W,  $\Gamma$ ,  $\Delta$ ,  $\Pi$ , 대부분 소문자 사본들, it, vg, syr<sup>c.p.</sup>, cop<sup>sa.bo.</sup>, arm, eth)만큼 비중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 구절이 본문에 있게 되면 두번째 언급된 14세대가 15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17절과 비교).

1:16 τὸν ἄνδρα Μαρίας, ἐξ ἧς ἐγεννήθη Ἰησοῦς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B}

이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요한 이문(異文) 독법들이 있다.

(1)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란 구절은 p<sup>1</sup>,  $\aleph$ , B, C, W, vg, syr<sup>p.h.pal.</sup>, cop<sup>sa.(bo.)</sup>, geo 등을 포함해서 초기 희랍어 증거자료와 번역 자료들 내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한 본문 계열에 의해 지지 받고 있다.

(2)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에게 정혼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란 구절은 가이사라 증거자료들과 몇몇의 Old Latin 증거자료들(  $\Theta$ , f<sup>13</sup>, it<sup>a.(b).e.d.(k).g</sup>)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이것과 유사한 구절로는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그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정혼 중이었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기록한 Curetonian Syriac 사본과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정혼 중이었으며, 그녀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기록한 Armenian 번역본의 독법들이 있다. Hippolytus가 그의 Chronicle( 약 A.D. 234년에 완성됨)에 엮어 넣은 좀더 완전한 형태의

Liber generationis에서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는다. "Ioseph, cui disponsata fuit uirgo Maria, quae genuit  
 Iesum Christum ex spiritu sancto" (1955년 Rudolf Helm에 의해 편집된 책  
 p.126:"요셉 그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정혼 중이었고 그녀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3)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정혼 중이었으며  
 그(요셉)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란 구절은 Sinaitic Syriac  
 사본에 의해 입증된다.

가끔 다른 증거자료들도 ~~이~~ <sup>(3)의</sup> 족법을 지지해 왔다.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의 논쟁을 보여주는 어떤 무명의 논문인 Timothy와 Aquila의 Dialogue에  
 서 마 1:16이 세번이나 언급된다. 이들 중 세번째 인용문은 일반적으로 사  
 용되었던 본문을 풀어 쓴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다: Ἰακώβ δὲ ἐγέννησεν τὸν  
 Ἰωσήφ τὸν μνηστευσάμενον Μαρίας, ἐξ ἧς ἐγεννήθη ὁ Χριστὸς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 정혼한 중이었고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두번째 인용문은 그  
 족보의 개요를 ~~간략하게~~ <sup>간략하게</sup> 언급하고 있는 끝부분에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  
 어 있다: Ἰακώβ δὲ τὸν Ἰωσήφ, ᾧ μνηστευθεῖσα Μαρία ἐξ ἧς ἐγεννήθη Ἰ  
 ησοῦς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ὸς("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에게)  
 마리아가 정혼한 중이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  
 났다"). Dialogue에 있는 마 1:16에 대한 첫번째 인용문을 보면, 그 유대인  
 이 위에 제시한 (1)의 형태로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추론에 의

해 그 구절을 지지한다. 즉 καὶ Ἰωσήφ ἐρένησεν τὸν λεγόμενον Χριστὸν, περὶ οὗ νῦν ὁ λόγος, φησὶν, ἐρένησεν ἐκ τῆς Μαρίας (“그래서 요셉은 그 리스도나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그에 관해서 말하면 그(요셉)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Conybeare는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이 구절은 ~~첫번째~~ <sup>V(1)에 V 명사</sup> ~~것에~~ <sup>2A권 V</sup> 첨가된 두번째 인용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본문 마 1:16에 대한 하나의 유대적인 해석임이 분명하다.

간혹 Sinaitic Syriac 독법을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다른 증거 자료는 12세기의 Jacobite Syrian 작가이며 Amida의 주교였던 Dionysius Barsalibi이다. 예를 들면 Hermann von Soden은 마 1:16에 대한 비평자로 안에 syr<sup>s</sup>의 본문과 전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교부의 증거자료로 Barsalibi란 이름을 인용한다. 그러나 아래에 언급한 주요한 요점들에 대한 설명이 보여주는 것 처럼 <sup>V 그 관계성이 V</sup> 명확하지 못하다.

복음서들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Barsalibi는

(No. 5)  
원근지로 계소?



040892

사위나 동양의 것

있다고 주장한다. 비합리적 관점은 마 1:18에 대한 Barsalibi  
 의 주석에 적용된다. 그의 주석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그 복음서 기자는) 여기서 그(예수)의 유체적인 탄생 방법  
 에 대해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절'(19절)이란 (

판어) 들었을 때에 그(예수)가 자연 법칙에 따라 출생했  
 다고 생각지 말라! 그는 자연 법칙을 세우셨던 분이시다. 그  
 리고 모셈에게 Bara in Kana 관 구절이 연관되면서

그 사 이 어 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리하니라. 관 구절이  
 언급된 것이며, 이 구절은 그(예수)가 다른 사경들과 마찬가지로  
 10 지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탄생은 새로운 것이며

일반 사경들의 불신보다 더 근절할 것이란 의미를  
 부여한다. 위에 언급된 시리아어는 (a) "누군가가 메시아를  
 낳았다는 말이다" 또는 (b) "그가 메시아를 낳았다는 말이  
 15 다를 수 없다. (a)의 동형 Qee 보편 Barsalibi가 여  
 기서나 다른 곳에서 관 구절이 연관되면서 Qee 보편

기서나 다른 곳에서 관 구절이 연관되면서 Qee 보편  
 aitic Syriac 특별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기자나 사  
 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b) 관 구절이 연관되면서 Qee 보편

Barsalibi는 모셈을 메시아와 관계시킨 아래의 설명에 대해  
 자신의 문약적인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관 구절이 연관되면서 Qee 보편

관 구절이 연관되면서 Qee 보편 Barsalibi의 관 구절이 연관되면서 Qee 보편  
 비록 그것이 하나의 인용일지라도)이나 그의 문약적인 해설을  
 16절에 대한 그 이전의 논의와 완전히 일치시키려고  
 또한 예수의 탄생은 독특하였다는 직재적으로 언급된 그의 구

메시아

이런 경우도



한글

장라 일치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Bar  
 salibi는 16절에 대한 Peshitta 분문을 그대로 <sup>(위의 (12)에서 제시된 분문)</sup> 받아들인 것  
 같다.

Sinaitic Syriac 즉법을 지지한다고 생각되었던 세번째  
 분문은 Arabic Diatessaron의 한 사본이다. Theodoret<sup>는</sup> T  
 atian이 그의 Diatessaron에서 마태나 누가적인 족보들을 사  
 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sup>고</sup>중세 Arabic Diatessaron  
 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본 A는 I:16 이후에 마태적  
 인 족보를 갖고 있고 IV:29 이후에 누가적인 족보를 갖고  
 있지만, B 사본과 R 사본은 Diatessaron의 끝에서 하나의 부록  
 으로 그것들을 제시한다). 12세기경의 것으로 추산되는 사본

A는 마 1:16에서 ولد يوسف رجل مريم ثلثي منها ولد ايسوع المسيح يهوذا

즉 "야곱은 <sup>마리아의 남편</sup> 요셉을 낳고

그녀의 남편은 <sup>(남성형 관계대명사)</sup> 메시아 예수를 낳았다고 말  
 한다. (다른 두 사본들은 <sup>정확하게 여성형</sup> <sup>관계</sup> 대명사 التي <sup>6</sup>)

를 썼다). 사본 A가 <sup>여전히</sup> 특별한 즉법을 지닌 <sup>원래의</sup>

어떤 희랍어 필사본 분문을 <sup>이것이</sup> <sup>Bar Bar</sup>

Kitt가 주장한 것처럼 거의 <sup>가능성이 없다.</sup>

관계대명사<sup>는</sup> 복주의한 필사본의 실수이던가 아니면 여성형에 대

한 남성 관계대명사의 <sup>원래의</sup> 어법일 것이다. 그래서 관계대명

사를 정확하게 고친다면 '그녀의 남편 (who of her)은 여성'

관계 대명사의 형태인 '그녀에게서' (of whom)가 될 것이며

두번째 등사 0.6는 Peshitta 번역본의 즉법과 <sup>같은</sup>

한글

5 10 15 20 25 30

형태인 수종태 (태어나다) 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3)독법)  
 그러므로 Sinaitic Syriac의 단독적인 독법들 지지하는  
 데에 추가할 만한 다른 실증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세가지의 중요한 독법들의 상대적 장원들은 무엇인가?

(1) 의 독법들을 지지하는 외적 증거 자료는 상당히 좋다.  
 즉 이 독법은 (1)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희  
 문이 대부분 사본들의 의 본문이며, ~~의 의해 유래하고 있음~~ 또한 (2)와  
 (3)을 지지하는 제한된 수의 증거 자료들만 제외하고 모든  
 사본들과 병행본들의 의 본문이다. ~~의 의해 유래한 필사(筆寫)적인 개연성들~~

은 (2)의 독법이 (야마르 가이사랴에서) 생긴 이유는  
 마리아의 남편이란 표현이 족보에서 이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주장한 독자  
 가 예수는 마리아와 그녀의 남편 요셉의 유족인 아들이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본문을~~ ~~이것을~~ ~~πρωτογενεος~~ 과 동사가 문법  
 과 마리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된 표현에 일치  
 시키기 위해 변경하였다. 만일 (2)의 독법이 원문이라고 한  
 라면, 필경사가 ~~대신에 (1)의 독법을~~ 마리아의 등장성을 분명하게 선  
 언하는 구절 ~~바른~~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20  
 독법 (3)이 마태복음에 대한 희랍어 사본 안에 존재했었  
 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의 의해 유래한~~ 이 독법이 독법 (2)를  
 의미한 것 (이것은 Burkitt의 관점이 있다)이거나 아니면 그  
 족보 안에서 앞에 언급되었던 형식을 순수하게 기계적으로 모

한글

5 10 15 20 25 30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족보에 있는 모든 이름  
 들이 호칭까지 연속해서 두번씩 ~~쓰였기~~ <sup>쓰였기</sup> 때문에, Sinaitic S  
 yriac (혹은 이 사본의 ~~원본~~ <sup>원본</sup>이 되는 원본)의 필경사가 부주  
 의하게 전형적인 형식을 따라가 16절에서 '요셉'이란 단어를  
 5 침묵으로 되풀이하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특별 (3)이 계속 이어  
 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을 법하다.

1 : 18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C} 원문을 결정하기  
 가 상당히 어렵다. 반면에 필경사들의 지배적인 경향은 Ἰησοῦς  
 10 Χριστός 를 덧붙여서 이 이름을 확대시키려고 했었다. O  
 ld Latin과 Old Syriac 등의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서  
 망 계통 특별인 Χριστοῦ 는 어떤 특유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단어는 말 문장 εἰς τοῦ Χριστοῦ 에 등재  
 15 수로 있다.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란 개인 이  
 름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 가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W 사본에서 Ἰησοῦ 는 다음에 나오는 권사의  
 명령 (2절) 에 일치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논의 될 수 있다.

반면에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를 지지하는 타당한 증거가 압도적  
 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특별은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다. 왜냐  
 20 하면 신약성서에서 ~~이~~ <sup>이</sup> 필경사가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란 표현  
 없이 붙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단지 열등한 사본들이 행 3:  
 3과 요일 4:3과 계 12:19에서 보여 준다).  
 이런 생동하는 전들에 직면해서 위임되는 ~~최소한~~ <sup>최소한</sup> ~~으로~~ <sup>으로</sup> 불만족





하

3:7 βάπτισμα αὐτοῦ

비록 αὐτοῦ가 <sup>α</sup>없는 <sup>β</sup>특별이 큰기에 속하는 좋은 증거 자료  
 들 ( <sup>α\*</sup>, B, cop<sup>sa</sup>, Origen Hilary ) 에 의해 입증되고 있지  
 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더 유세한 증거 자료들에 의해 지지받  
 고 있는 <sup>β</sup>특별을 채택하기로 했다. 필경사들이 βάπτισμα 뒤에  
 5 있는 αὐτοῦ를 불필요하다고 여겼거나 아니면 걱정하지 못하  
 다고 여겼기 때문에 <sup>α</sup>삭제시켰을 것이다 ( ἐπὶ τὸ βάπτισμα  
 는 '세례를 위해'란 의미가 된다 ).

3:12 αὐτοῦ εἰς τὴν ἀποθήκην {C}

χεῖρῃ 와 ἄλλωα 뒤에 있는 αὐτοῦ에 대해서는 <sup>α</sup>사본적 차이  
 가 없는 반면에, <sup>β</sup>이런 증거 자료들은 σῖτον 뒤에 <sup>α</sup>αὐτοῦ가  
 있고, (b) 이런 증거 자료들은 ἀποθήκην 뒤에 <sup>α</sup>이 단  
 어가 있고, (c) 이런 증거 자료들은 σῖτον과 ἀποθήκην  
 15 뒤에 <sup>α</sup>이 단어가 있고, (d) 소수의 증거 자료들은 양쪽  
 위치에서 이 단어가 빠져 있다. (대다수의 (위원회) 의견이 이쪽  
 증거 ( <sup>α</sup>, C, K, Δ, f', 28, 33, 565, 700, it<sup>cs,d</sup>, vg, cop<sup>sa,bo</sup>,  
 a ) 에 의지하여 <sup>β</sup>특별 (a) 을 선택했다. 그리고 <sup>β</sup>특별 (b)  
 는 <sup>α</sup>눅 3:11 (이곳의 본문은 실<sup>제</sup>로 <sup>α</sup>행군함) 에 있는 <sup>β</sup>특별  
 20 불분과 준타시키에 의해서 필경사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  
 다고 보았다. <sup>β</sup>특별 (c) 는 필경사에 의한 확대 (메시야가 키  
 와 각각 마당 뿐 아니라 마할까지로 밭과 곡관을 소유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 결과로 생긴 것 같으며 반면에 <sup>β</sup>특별

(d)는 문헌적인 결백주의 (literary purism)의 관점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3 : 15  $\alpha\upsilon\tau\acute{o}\nu$  (2) 15절과 16절 사이에서 두개의 라틴어 사본들 (it<sup>a</sup>, vg<sup>ms</sup>)은 다음과 같이 예수의 세례를 <sup>표현</sup>한다: Et cum baptizaretur Iesus (it<sup>a</sup>에는 Iesus가 생략됨), lumen magnum fulgebat (it<sup>a</sup>에는 lumen ingens circumfulsit로 표현) de aqua, ita ut timerant omnes qui congregati erant (it<sup>a</sup>에는 advenierant로 표현) 즉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sup>그물에서</sup> 큰 빛이 번쩍거렸다 (굉장한 빛이 주위에 번쩍거렸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Mervin Ishodad (9세기)와 Dionysius Barsalibi (12세기)에 따르면, Tatian의 Diatessaron에도 그 빛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Ishodad의 Commentary on the Gospels에 있는 본문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Diatessaron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큰 큰 빛이 비추었고 또한 광은 흰 구름으로 둘러싸였으며 많은 영의 영적 존재들이 공중에서 찬양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또한 광은 상강히 근호하게 흘렀고 물결이 일지 않았으며 향기가 거기로부터 흘러나왔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었다" (M. D. Gibson의 번역본 p.21)

이 인용문 중에서 일부분을 Tatian의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또한 다른 자료들 (아마 후기 찬송가)들로부터 일부분을 받











√<sup>의장</sup>을<sup>지치</sup>

반대한다.

5:47 ἐθνικοί {B} Textus Receptus<sup>가</sup>

받아들였<sup>다</sup> 후기 증거 자료들 안에 있는 특별한 τελιωνα<sup>는</sup> 그 전술을 앞 문장과 더욱 밀접한 대조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ἐθνικοί 대신 사용했던 것 같다. Armenian 번역본은 이 특별을 누가의 말뿐 형태 (눅 6:32-34)와 융합시켰다.

6:4 ἀποδώσει 사본 D, E, M, S, W, X<sup>vid</sup>, Δ, Π, Σ, Φ, 28, 565, 1241, al, 등을 따라서 Textus Receptus

는 ἀποδώσει 앞에 αὐτός 를 첨가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 자료들 (700, 1223)은 σοι 뒤에 이 단어를 첨가시켰다. 이 특별들은 그 말뿐에 강한 인상을 주게 하기 위해서 <sup>대</sup>한 것들이 분명하다. 그래서 다른 모든 증거 자료들에 의해 지지 받고 있는 짧은 본문은 선택~~해야~~ <sup>하는 것이</sup> ~~할~~ <sup>것을</sup> 것이다.

6:4 σοι {B}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sup>증거 자료들</sup>, 서방 계열의 <sup>증거 자료들</sup>, 전(前) 가이사라 계열의 <sup>증거 자료들</sup>, 이집트 계열의 후기 증거 자료들에는 <sup>할라</sup> ~~바~~ 티이 있는 ἐν

τῷ φανερωῶ란 구절은 앞에 인용된 ἐν τῷ κρυπτῷ란 구절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자가 첨가시킨 것 같다. 그러나 전체 관점에서 볼 때 요점은 아버지의 상급의 개방성에 있다기 보다는 단순한 인간적인 차<sup>이를</sup> ~~한~~ <sup>것</sup> ~~은~~ <sup>2</sup> 상급의 우위성에 있다 (6절과 18절 비교)

6:6 σοι {B} 4절 주석을 참조하라.

번호

041192

32\*23=736

6:8 ὁ πατήρ ὑμῶν {A} 확대된 특법 ὁ ✓  
 Θεὸς ὁ πατήρ ὑμῶν (D<sup>a</sup>, B, cop<sup>sa</sup>, Origen)은 마태복  
 음에서만 나타나며, Θεός와 πατήρ를 나란히 배열시킨 <sup>바울</sup> 바울  
 책인 특징 (롬<sup>✓</sup> 1:7, 2전<sup>✓</sup> 1:3, 고후<sup>✓</sup> 1:2, 갈<sup>✓</sup> 1:3, 엡<sup>✓</sup> 1:2,  
 5 엡<sup>✓</sup> 6:23, 빌<sup>✓</sup> 1:2, 빌<sup>✓</sup> 2:11, 골 3:17, 살전 1:1, 살후 1  
 :1-2, 살후 2:16, 딤후 1:2, 딤후 1:2, 단 1:4,  
 문 3)을 <sup>키리엔</sup>만 명시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증거 자료들에서 발견되는 ὁ πατήρ ὑμῶν ὁ οὐράνιος  
 10 ἡ ὑμῶν 대신 ἡμῶν이 <sup>나타나게 될</sup>이유는 후기 희랍어에서  
 η와 υ가 발음상 같았기 때문에 필자수가 무심결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6:8 πρὸ τοῦ ὑμῶν αἰτῆσαι αὐτόν "너희가 <sup>22</sup>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15 <sup>교역</sup> 라는 일반적인 특법 대신에 두개의 서방 계통 본문들 (D<sup>br</sup>,  
 it<sup>h</sup>, [it<sup>d</sup>, hiat])은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용구절 "너희가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αἰτῆσαι αὐτόν" (πρὸ τοῦ ἀνοῖξαι τὸν  
 στόμα)란 표현이 있다.

6:12 ἀφήκαμεν 다섯번째 <sup>기도</sup> ~~문~~문에 있는 두번째  
 20 증거가 "우리가 통시하는 것 같이" (훈정역; AV)란 표현인가  
 아니면 "우리가 통시했던 것 같이" (RSV)란 표현인가?  
 후자의 표현은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sup>키리엔</sup>키리엔  
 α<sup>\*</sup>, B, Z, 1, 22, 124<sup>mg</sup>, 1365, 1582, Latin Vulgate의 다







번호

OR/090192

32\*23=736

X

6:33

την βασιλείαν [του Θεου] και την

δικαιοσύνην

αυτου

{C} 이 불문 자로 들은 여러 가지

가양할 때가 들을 수 용할 ~~받아 들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위원회의 손수 의

전에 의하면 다른 득법들이 생기게 된 이유를 가장 잘 설명

하는 득법은  $\alpha$ , (B), it, a에 의해 지지 받고 있는 득법으로 βασιλείαν

뒤에 του Θεου (또는 των ουρανων)를 아주 자연스럽게 첨가시킨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이 관이 들어 첨가된 것이 아니라

근저의 원문이라면 생략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본

B에서 δικαιοσύνην 과 βασιλείαν 의 위치가 바뀐 것은

아마도 '의'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체~~ 순서가 바뀐 것일

수하고 싶은 의도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 (5:20 비교).

~~한편으로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아래가 사용하고 있는

지배적인 관용법을 따르고자 했다. 아래는 수식어 없이 Βασιλεία

만 사용한 적이 거의 없다 (A:12, B:3A, 24:7, 24:14 등

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로 간주했다). 그리고 몇몇 증거 자료

들에서 수식어가 없는 사례는 필자 ~~가~~ ~~의면~~ ~~생각~~ ~~시~~ ~~킬~~ ~~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생략되는 해석들 때문에 비록 관

호로 묶었지만 이 문구들을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문의

방책이었다.

7:13

πλατεία

ή πύλη

{C}

ή πύλη

한이 들은 ~~A~~ ~~본~~  $\alpha^*$ , 1626, it<sup>a,b,c,h,k</sup>와 이 말뜻에 대한 여러 교부

들의 인용문에서 ~~생략~~ ~~되어~~ ~~있~~ ~~으며~~, 그리고 113, 1A2\*, 482, 544, it<sup>a,h,k</sup>

와 여러 교부들의 인용문에서 생략되어 있다.

X<sub>20</sub>

20



항목

041292 / 090992 /

32 \* 23 = 736

전송한 내용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된 전례적인 보충  
 주제의 한 예가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의 끝에서 발견된다. <sup>나에게</sup>  
 주어 주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sup>99</sup>. 존 안<sup>10</sup>고  
 하늘 필경사들이 이 판이들이 주는 의미만으로는 만족하지 못

해서 οὗτος εἰσλεύσεται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ῶν  
 οὐρανῶν 즉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만 구원을 얻  
 자시켰다 (C<sup>2</sup>, W, Θ, Φ 등은 αὐτός로 읽는다), 33, 491,  
 713, 1241, it<sup>a,b,c,k,l,g</sup>, vg<sup>most. mss</sup>, syrc, Diatessaron<sup>1</sup>.)

7: 24 ὁμοιωθήσεται {C} 이차 입증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위치는 ὁμοιωθήσεται 을 생각했다. 특히  
 필경사가 누가 <sup>작인</sup> 평행 구절 ("나는 그가 누구와 같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sup>99</sup>, 눅 6: 41) 을 기억했다면, 수동태 등사  
 "비유될 것이다" 를 능동태 등사 "내가 비유할 것이다"로 변경

17 시켰을 가능성은 높다.  
 A: A ο παῖς μου {C} 이차 증거는 ο  
 παῖς μου 관 단어들이 <sup>원문에</sup> 포함된 것이 있다는 것을 <sup>반증적으로</sup> 지지하고  
 있다. → 몇몇 증거 자료들 (f<sup>1</sup>, it<sup>k</sup>, cop<sup>sa, bo, mss</sup>, Origen)

20 안에서 이 단어들이 생각된 것은 필경사의 눈이 ἰαθήσεται에  
 서 뒤에 있는 καί로 띄어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하는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21 A: 9 ὑπὸ ἐξουσίαν {B} τασόμενος 관  
 단어는 눅 7: 8에 있는 평행 구절 ~~을~~로 대를 해서 써넣은

번호 OR/090992 32\*23=736

것임이 분명하다. 태냐하면 만일 이 단어가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거의 모든 증거 자료들에 이 단어가 활용되어 있는 것을 설명할 만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8:10 παρ' οὐδενὶ τοσαύτην πίστιν ἐν τῷ Ἰσραὴλ εὕρον {B} 특별 οὐδε ἐν τῷ Ἰσραὴλ τοσαύτην πίστιν εὕρον 은 본문보다 더욱 명쾌하고 더욱 쉽다는 것 외에도 누 9:9에 있는 표현 구절에 등화(同化)된 것임이 분명하다. 다른 두 특별들은 아파르 필경사들 편에서 부주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

8:12 ἐκβληθήσονται {C} 특별 ἐξέλθουσιν (C\*, 0250, it<sup>k</sup>, syr<sup>c,s,p,pl</sup>, arm, 몇몇의 큰 교부 증거 자료들)는 행위자가 불확리지 않은 채로 낫다 있을 때 수동태 등사의 사용을 피하고 앞 절에 있는 ἵξουσιν ("올 것이다", "나갈 것이다") 이란 등사에 대한 아주 적절한 직을 제시하기 위해서 ἐκβληθήσονται란 등사 대신 사용되었던 것 같다.

8:13 ἐν τῇ ὥρᾳ ἐκείνῃ {B} 마태는 ἐν τῇ ἡμέρᾳ ἐκείνῃ (9:22; 13:1; 22:23)과 마찬가지로 ἀπὸ τῆς ὥρας ἐκείνης (9:22; 15:28; 17:18)와 ἐν ἐκείνῃ τῇ ὥρᾳ (10:19; 18:1) 등의 표현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적 증거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위원회는 본문에 제시한 표현을 이적

09092 (약)

36\*23=828

증거들이 명백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 18  $\delta\gamma\lambda\omicron\nu$  {D} 오랜 논의 끝에 위원회의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비록 빈약한 자료이긴 하지만 B와  $cop^{sa}$ 의 특성이 훨씬 원문일 가능성이 크며 다른 특성은 예수 복원에 있는  $\delta\gamma\lambda\omicron\nu$ 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확대시킨 표현이라고 이해했다.

아: 21  $\tau\omega\nu\ \mu\alpha\theta\eta\tau\omega\nu$  [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 {C}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가 활락된 형태를  $\delta$ , B, 33,  $it^a$ ,  $cop^{sa}$  등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강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위원회의 대다수는 19절의  $\rho\rho\alpha\mu\mu\alpha\tau\epsilon\upsilon\varsigma$ 가 예수의 제자였다는 주론을 못하도록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를 제거시켰을 가능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오히려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보다는  $\epsilon\tau\epsilon\rho\omicron\varsigma$ 란 단어가 때문에 19절의  $\rho\rho\alpha\mu\mu\alpha\tau\epsilon\upsilon\varsigma$ 가 예수의 제자라는 주론이 논의될 수 있다. 실제로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의 활락은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불문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 이런 ~~상~~반되는 두 경우를 제시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괄호로 묶어서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아: 23  $\tau\omicron\ \pi\lambda\omicron\tau\omicron\nu$  {C} 한편으로는  $\delta$ , B, C,  $f^1$ ,  $f^{13}$ , 33, 565,  $al$  등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관사 없는 특성이 일반적으로 원문이라는 해석을 줄 수 있다. 반면에 (a) 아래 복문에서  $\pi\lambda\omicron\tau\omicron\nu$ 의 용법을 보면 전반적으로 관사와 함께 쓰였으며, (b) 관사가 활락된  $\pi\lambda\omicron\tau\omicron\nu$ 의 필경사가  $\delta$  아: 22의 평행 구절에 등화(同化)시키기 위해 언어상  $\pi\lambda\omicron\tau\omicron\nu$ 를 다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25  $\rho\rho\omicron\sigma\epsilon\lambda\theta\omicron\nu\tau\epsilon\varsigma$  {C}  $\delta$ , B, 092 등에 나타나는

장소

090992

짧은 독법들은 지나치게 상세한 본문 (23절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이 영접되었다) 을 피하려는 알렉산드리아식의 가지치기의 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서방 계열의 증거 자료들 (it<sup>a</sup>, k, l,  
 vg, Jerome) 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짧은 독법이 원문일  
 가능성이 크며, 몇몇의 이문 (異文) 독법들은 본문의 발췌 단  
 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A: 25  $\sigma\omega\sigma\omicron\nu$  {B} 신약 성서에서  $\sigma\omega\sigma\epsilon\iota\nu$  은 목  
 록이 많이 사용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조 단어  $\eta\mu\alpha\varsigma$   
 의 철자는 초기에 여러 증거 자료들 안에서 이루어졌다. 만일  
 이 단어가 원문에 있었다면 그것을 삭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 A: 2A  $\tau\alpha\delta\alpha\rho\eta\nu\omega\nu$  {C} 키신들권 사본을 그친 기  
 사는 세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그 키작이 일어났  
 장소에 관하여는 세 기록 모두 중요한 이문(異文) 독법들이 있다:  
 $\tau\alpha\delta\alpha\rho\eta\nu\omega\nu$ ,  $\tau\epsilon\rho\alpha\sigma\eta\nu\omega\nu$  그리고  $\tau\epsilon\rho\chi\epsilon\sigma\eta\nu\omega\nu$ . 세 기  
 록을 지지하고 있는 증거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tau\alpha\delta\alpha\rho\eta\nu\omega\nu$	$\tau\epsilon\rho\alpha\sigma\eta\nu\omega\nu$	$\tau\epsilon\rho\chi\epsilon\sigma\eta\nu\omega\nu$
마 A: 28	( $\lambda^*$ ), B, C <sup>txt</sup> , ⊕, syr <sup>sph</sup>	it, vg, cop <sup>sa</sup> , syr <sup>hmg</sup> <small>이게 아니라</small>	$\lambda^c$ , C <sup>mg</sup> , k, L, W, f <sup>i</sup> , f <sup>B</sup> , cop <sup>bo</sup>
막 5: 1	A, C, k, f <sup>B</sup> , syr <sup>Psh</sup>	$\lambda^*$ , B, D, it, vg, cop <sup>sa</sup>	$\lambda^c$ , L, Δ, ⊕, f <sup>i</sup> , syr <sup>s,hmg</sup> , cop <sup>bo</sup> <small>LC<sup>2</sup> "C"</small>
눅 A: 26	A, k, W, Δ <sup>gr</sup> , Ψ, C <sup>13</sup> , C <sup>5</sup> , P <sup>sh</sup>	P <sup>25</sup> , B, D, it, vg, cop <sup>sa</sup>	$\lambda^c$ , X, ⊕, f <sup>i</sup> , cop <sup>bo</sup>



이 단

090492

위와 같은 여러 이문(異文) 득법들 중 ~~의뢰회는~~ <sup>이단이다</sup> 다음과 같은 근거로  $\Gamma\alpha\delta\alpha\sigma\mu\eta\nu\acute{\alpha}\nu$  을 선택했다. (a) ~~의뢰회는~~ <sup>이단이다</sup>  $\langle \text{B}^* \rangle$ , B, C<sup>txt</sup>,  $\langle \Delta \rangle$ ,  $\Theta$ , Syr<sup>s.p.h</sup>, Geo<sup>1</sup>, 오리게네에게 알려진 사본들, al) 에서 쓰였으며, (b) 오리게네<sup>1</sup>의 ~~의뢰~~ <sup>의뢰</sup>  $\tau\epsilon\rho\alpha\sigma\mu\eta\nu\acute{\alpha}\nu$  은 수정된 단어 ~~의뢰~~ <sup>의뢰</sup> (변역본들이 의해서만 지지받고 있는)  $\tau\epsilon\rho\alpha\sigma\mu\eta\nu\acute{\alpha}\nu$  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마가(5:1)나 누가(8:26, 37) <sup>본문에 따라</sup> 필경사가 동화(同化)시킨 단어일 것이다.

9:4  $\kappa\alpha\iota \dot{\iota}\delta\omega\nu$  {C} 위뢰회의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dot{\iota}\delta\omega\nu$  관 득법보다는  $\dot{\iota}\delta\omega\nu$  이관 득법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a)  $\epsilon\dot{\iota}\delta\omega\varsigma$  는  $\dot{\iota}\delta\omega\nu$  <sup>들</sup> 교정된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사본의 생각을 "보시라" 는 "아시라" 라는 표현보다 덜 세련된 표현인 것 같다), 그리고 (b)  $\dot{\iota}\delta\omega\nu$  은 앞의 구절의 표현과도 일치하며, <sup>다른</sup> ~~행행~~ <sup>행행</sup> 본문들 (막 2:8; 눅 5:22) 안이 맞는다.  $\kappa\alpha\iota$  와 결합된 증거가  $\delta\acute{\epsilon}$  와 결합된 증거보다 매우 우세하다.

9:8  $\epsilon\phi\omicron\beta\eta\theta\eta\sigma\alpha\nu$  {B} 신중하지 못한 득자들<sup>1</sup> 필경사들은 "두려워하였다" (즉 무리들은 <sup>죄를</sup> 용서하는 <sup>권한</sup> 을 가진 자 앞에서 <sup>감각</sup> 놀랐으며 같은 정의<sup>1</sup> <sup>어제</sup> <sup>는</sup> <sup>것</sup> <sup>다</sup>) 의 같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epsilon\phi\omicron\beta\eta\theta\eta\sigma\alpha\nu$  이관 단어 대신에  $\epsilon\theta\acute{\alpha}\nu\mu\alpha\sigma\alpha\nu$  ("이상히 여겼다", "놀랐다") 를 좀 더 적당<sup>1</sup>한 단어라고 여겨서 바꾸어 넣었다. 좀 더 어려운 득법을

하

090892

9:10 <sup>5</sup> <sup>10</sup> <sup>15</sup> <sup>20</sup> <sup>25</sup> <sup>30</sup>  
 제라고 보일 위적 증거는 εφοβήθησαν 이 큰기 형태일 뿐 아  
 니라 여러 본문 계열들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서방 본문 계  
 열, 가이사라 본문 계열)의 대표적인 본문들에도 기록되어 있다  
 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단어를 지지하고 있다.

9:10 <sup>5</sup> <sup>10</sup> <sup>15</sup> <sup>20</sup> <sup>25</sup> <sup>30</sup>  
 υψοτεύμεν [πολλά] {C} <sup>a</sup>의 득법은  
 πυκνά 가 별다른 이문(異文)들이 없이 일치하고 있는 <sup>5</sup>  
 :33의 평행본문에 따라서 필경사에 의해 동화(同化)된 것이  
 분명하다. πολλά는 마가 <sup>10</sup> <sup>15</sup> <sup>20</sup> <sup>25</sup> <sup>30</sup> <sup>35</sup> <sup>40</sup> <sup>45</sup> <sup>50</sup> <sup>55</sup> <sup>60</sup> <sup>65</sup> <sup>70</sup> <sup>75</sup> <sup>80</sup> <sup>85</sup> <sup>90</sup> <sup>95</sup> <sup>100</sup> <sup>105</sup> <sup>110</sup> <sup>115</sup> <sup>120</sup> <sup>125</sup> <sup>130</sup> <sup>135</sup> <sup>140</sup> <sup>145</sup> <sup>150</sup> <sup>155</sup> <sup>160</sup> <sup>165</sup> <sup>170</sup> <sup>175</sup> <sup>180</sup> <sup>185</sup> <sup>190</sup> <sup>195</sup> <sup>200</sup> <sup>205</sup> <sup>210</sup> <sup>215</sup> <sup>220</sup> <sup>225</sup> <sup>230</sup> <sup>235</sup> <sup>240</sup> <sup>245</sup> <sup>250</sup> <sup>255</sup> <sup>260</sup> <sup>265</sup> <sup>270</sup> <sup>275</sup> <sup>280</sup> <sup>285</sup> <sup>290</sup> <sup>295</sup> <sup>300</sup> <sup>305</sup> <sup>310</sup> <sup>315</sup> <sup>320</sup> <sup>325</sup> <sup>330</sup> <sup>335</sup> <sup>340</sup> <sup>345</sup> <sup>350</sup> <sup>355</sup> <sup>360</sup> <sup>365</sup> <sup>370</sup> <sup>375</sup> <sup>380</sup> <sup>385</sup> <sup>390</sup> <sup>395</sup> <sup>400</sup> <sup>405</sup> <sup>410</sup> <sup>415</sup> <sup>420</sup> <sup>425</sup> <sup>430</sup> <sup>435</sup> <sup>440</sup> <sup>445</sup> <sup>450</sup> <sup>455</sup> <sup>460</sup> <sup>465</sup> <sup>470</sup> <sup>475</sup> <sup>480</sup> <sup>485</sup> <sup>490</sup> <sup>495</sup> <sup>500</sup> <sup>505</sup> <sup>510</sup> <sup>515</sup> <sup>520</sup> <sup>525</sup> <sup>530</sup> <sup>535</sup> <sup>540</sup> <sup>545</sup> <sup>550</sup> <sup>555</sup> <sup>560</sup> <sup>565</sup> <sup>570</sup> <sup>575</sup> <sup>580</sup> <sup>585</sup> <sup>590</sup> <sup>595</sup> <sup>600</sup> <sup>605</sup> <sup>610</sup> <sup>615</sup> <sup>620</sup> <sup>625</sup> <sup>630</sup> <sup>635</sup> <sup>640</sup> <sup>645</sup> <sup>650</sup> <sup>655</sup> <sup>660</sup> <sup>665</sup> <sup>670</sup> <sup>675</sup> <sup>680</sup> <sup>685</sup> <sup>690</sup> <sup>695</sup> <sup>700</sup> <sup>705</sup> <sup>710</sup> <sup>715</sup> <sup>720</sup> <sup>725</sup> <sup>730</sup> <sup>735</sup> <sup>740</sup> <sup>745</sup> <sup>750</sup> <sup>755</sup> <sup>760</sup> <sup>765</sup> <sup>770</sup> <sup>775</sup> <sup>780</sup> <sup>785</sup> <sup>790</sup> <sup>795</sup> <sup>800</sup> <sup>805</sup> <sup>810</sup> <sup>815</sup> <sup>820</sup> <sup>825</sup> <sup>830</sup> <sup>835</sup> <sup>840</sup> <sup>845</sup> <sup>850</sup> <sup>855</sup> <sup>860</sup> <sup>865</sup> <sup>870</sup> <sup>875</sup> <sup>880</sup> <sup>885</sup> <sup>890</sup> <sup>895</sup> <sup>900</sup> <sup>905</sup> <sup>910</sup> <sup>915</sup> <sup>920</sup> <sup>925</sup> <sup>930</sup> <sup>935</sup> <sup>940</sup> <sup>945</sup> <sup>950</sup> <sup>955</sup> <sup>960</sup> <sup>965</sup> <sup>970</sup> <sup>975</sup> <sup>980</sup> <sup>985</sup> <sup>990</sup> <sup>995</sup> <sup>1000</sup> <sup>1005</sup> <sup>1010</sup> <sup>1015</sup> <sup>1020</sup> <sup>1025</sup> <sup>1030</sup> <sup>1035</sup> <sup>1040</sup> <sup>1045</sup> <sup>1050</sup> <sup>1055</sup> <sup>1060</sup> <sup>1065</sup> <sup>1070</sup> <sup>1075</sup> <sup>1080</sup> <sup>1085</sup> <sup>1090</sup> <sup>1095</sup> <sup>1100</sup> <sup>1105</sup> <sup>1110</sup> <sup>1115</sup> <sup>1120</sup> <sup>1125</sup> <sup>1130</sup> <sup>1135</sup> <sup>1140</sup> <sup>1145</sup> <sup>1150</sup> <sup>1155</sup> <sup>1160</sup> <sup>1165</sup> <sup>1170</sup> <sup>1175</sup> <sup>1180</sup> <sup>1185</sup> <sup>1190</sup> <sup>1195</sup> <sup>1200</sup> <sup>1205</sup> <sup>1210</sup> <sup>1215</sup> <sup>1220</sup> <sup>1225</sup> <sup>1230</sup> <sup>1235</sup> <sup>1240</sup> <sup>1245</sup> <sup>1250</sup> <sup>1255</sup> <sup>1260</sup> <sup>1265</sup> <sup>1270</sup> <sup>1275</sup> <sup>1280</sup> <sup>1285</sup> <sup>1290</sup> <sup>1295</sup> <sup>1300</sup> <sup>1305</sup> <sup>1310</sup> <sup>1315</sup> <sup>1320</sup> <sup>1325</sup> <sup>1330</sup> <sup>1335</sup> <sup>1340</sup> <sup>1345</sup> <sup>1350</sup> <sup>1355</sup> <sup>1360</sup> <sup>1365</sup> <sup>1370</sup> <sup>1375</sup> <sup>1380</sup> <sup>1385</sup> <sup>1390</sup> <sup>1395</sup> <sup>1400</sup> <sup>1405</sup> <sup>1410</sup> <sup>1415</sup> <sup>1420</sup> <sup>1425</sup> <sup>1430</sup> <sup>1435</sup> <sup>1440</sup> <sup>1445</sup> <sup>1450</sup> <sup>1455</sup> <sup>1460</sup> <sup>1465</sup> <sup>1470</sup> <sup>1475</sup> <sup>1480</sup> <sup>1485</sup> <sup>1490</sup> <sup>1495</sup> <sup>1500</sup> <sup>1505</sup> <sup>1510</sup> <sup>1515</sup> <sup>1520</sup> <sup>1525</sup> <sup>1530</sup> <sup>1535</sup> <sup>1540</sup> <sup>1545</sup> <sup>1550</sup> <sup>1555</sup> <sup>1560</sup> <sup>1565</sup> <sup>1570</sup> <sup>1575</sup> <sup>1580</sup> <sup>1585</sup> <sup>1590</sup> <sup>1595</sup> <sup>1600</sup> <sup>1605</sup> <sup>1610</sup> <sup>1615</sup> <sup>1620</sup> <sup>1625</sup> <sup>1630</sup> <sup>1635</sup> <sup>1640</sup> <sup>1645</sup> <sup>1650</sup> <sup>1655</sup> <sup>1660</sup> <sup>1665</sup> <sup>1670</sup> <sup>1675</sup> <sup>1680</sup> <sup>1685</sup> <sup>1690</sup> <sup>1695</sup> <sup>1700</sup> <sup>1705</sup> <sup>1710</sup> <sup>1715</sup> <sup>1720</sup> <sup>1725</sup> <sup>1730</sup> <sup>1735</sup> <sup>1740</sup> <sup>1745</sup> <sup>1750</sup> <sup>1755</sup> <sup>1760</sup> <sup>1765</sup> <sup>1770</sup> <sup>1775</sup> <sup>1780</sup> <sup>1785</sup> <sup>1790</sup> <sup>1795</sup> <sup>1800</sup> <sup>1805</sup> <sup>1810</sup> <sup>1815</sup> <sup>1820</sup> <sup>1825</sup> <sup>1830</sup> <sup>1835</sup> <sup>1840</sup> <sup>1845</sup> <sup>1850</sup> <sup>1855</sup> <sup>1860</sup> <sup>1865</sup> <sup>1870</sup> <sup>1875</sup> <sup>1880</sup> <sup>1885</sup> <sup>1890</sup> <sup>1895</sup> <sup>1900</sup> <sup>1905</sup> <sup>1910</sup> <sup>1915</sup> <sup>1920</sup> <sup>1925</sup> <sup>1930</sup> <sup>1935</sup> <sup>1940</sup> <sup>1945</sup> <sup>1950</sup> <sup>1955</sup> <sup>1960</sup> <sup>1965</sup> <sup>1970</sup> <sup>1975</sup> <sup>1980</sup> <sup>1985</sup> <sup>1990</sup> <sup>1995</sup> <sup>2000</sup> <sup>2005</sup> <sup>2010</sup> <sup>2015</sup> <sup>2020</sup> <sup>2025</sup> <sup>2030</sup> <sup>2035</sup> <sup>2040</sup> <sup>2045</sup> <sup>2050</sup> <sup>2055</sup> <sup>2060</sup> <sup>2065</sup> <sup>2070</sup> <sup>2075</sup> <sup>2080</sup> <sup>2085</sup> <sup>2090</sup> <sup>2095</sup> <sup>2100</sup> <sup>2105</sup> <sup>2110</sup> <sup>2115</sup> <sup>2120</sup> <sup>2125</sup> <sup>2130</sup> <sup>2135</sup> <sup>2140</sup> <sup>2145</sup> <sup>2150</sup> <sup>2155</sup> <sup>2160</sup> <sup>2165</sup> <sup>2170</sup> <sup>2175</sup> <sup>2180</sup> <sup>2185</sup> <sup>2190</sup> <sup>2195</sup> <sup>2200</sup> <sup>2205</sup> <sup>2210</sup> <sup>2215</sup> <sup>2220</sup> <sup>2225</sup> <sup>2230</sup> <sup>2235</sup> <sup>2240</sup> <sup>2245</sup> <sup>2250</sup> <sup>2255</sup> <sup>2260</sup> <sup>2265</sup> <sup>2270</sup> <sup>2275</sup> <sup>2280</sup> <sup>2285</sup> <sup>2290</sup> <sup>2295</sup> <sup>2300</sup> <sup>2305</sup> <sup>2310</sup> <sup>2315</sup> <sup>2320</sup> <sup>2325</sup> <sup>2330</sup> <sup>2335</sup> <sup>2340</sup> <sup>2345</sup> <sup>2350</sup> <sup>2355</sup> <sup>2360</sup> <sup>2365</sup> <sup>2370</sup> <sup>2375</sup> <sup>2380</sup> <sup>2385</sup> <sup>2390</sup> <sup>2395</sup> <sup>2400</sup> <sup>2405</sup> <sup>2410</sup> <sup>2415</sup> <sup>2420</sup> <sup>2425</sup> <sup>2430</sup> <sup>2435</sup> <sup>2440</sup> <sup>2445</sup> <sup>2450</sup> <sup>2455</sup> <sup>2460</sup> <sup>2465</sup> <sup>2470</sup> <sup>2475</sup> <sup>2480</sup> <sup>2485</sup> <sup>2490</sup> <sup>2495</sup> <sup>2500</sup> <sup>2505</sup> <sup>2510</sup> <sup>2515</sup> <sup>2520</sup> <sup>2525</sup> <sup>2530</sup> <sup>2535</sup> <sup>2540</sup> <sup>2545</sup> <sup>2550</sup> <sup>2555</sup> <sup>2560</sup> <sup>2565</sup> <sup>2570</sup> <sup>2575</sup> <sup>2580</sup> <sup>2585</sup> <sup>2590</sup> <sup>2595</sup> <sup>2600</sup> <sup>2605</sup> <sup>2610</sup> <sup>2615</sup> <sup>2620</sup> <sup>2625</sup> <sup>2630</sup> <sup>2635</sup> <sup>2640</sup> <sup>2645</sup> <sup>2650</sup> <sup>2655</sup> <sup>2660</sup> <sup>2665</sup> <sup>2670</sup> <sup>2675</sup> <sup>2680</sup> <sup>2685</sup> <sup>2690</sup> <sup>2695</sup> <sup>2700</sup> <sup>2705</sup> <sup>2710</sup> <sup>2715</sup> <sup>2720</sup> <sup>2725</sup> <sup>2730</sup> <sup>2735</sup> <sup>2740</sup> <sup>2745</sup> <sup>2750</sup> <sup>2755</sup> <sup>2760</sup> <sup>2765</sup> <sup>2770</sup> <sup>2775</sup> <sup>2780</sup> <sup>2785</sup> <sup>2790</sup> <sup>2795</sup> <sup>2800</sup> <sup>2805</sup> <sup>2810</sup> <sup>2815</sup> <sup>2820</sup> <sup>2825</sup> <sup>2830</sup> <sup>2835</sup> <sup>2840</sup> <sup>2845</sup> <sup>2850</sup> <sup>2855</sup> <sup>2860</sup> <sup>2865</sup> <sup>2870</sup> <sup>2875</sup> <sup>2880</sup> <sup>2885</sup> <sup>2890</sup> <sup>2895</sup> <sup>2900</sup> <sup>2905</sup> <sup>2910</sup> <sup>2915</sup> <sup>2920</sup> <sup>2925</sup> <sup>2930</sup> <sup>2935</sup> <sup>2940</sup> <sup>2945</sup> <sup>2950</sup> <sup>2955</sup> <sup>2960</sup> <sup>2965</sup> <sup>2970</sup> <sup>2975</sup> <sup>2980</sup> <sup>2985</sup> <sup>2990</sup> <sup>2995</sup> <sup>3000</sup> <sup>3005</sup> <sup>3010</sup> <sup>3015</sup> <sup>3020</sup> <sup>3025</sup> <sup>3030</sup> <sup>3035</sup> <sup>3040</sup> <sup>3045</sup> <sup>3050</sup> <sup>3055</sup> <sup>3060</sup> <sup>3065</sup> <sup>3070</sup> <sup>3075</sup> <sup>3080</sup> <sup>3085</sup> <sup>3090</sup> <sup>3095</sup> <sup>3100</sup> <sup>3105</sup> <sup>3110</sup> <sup>3115</sup> <sup>3120</sup> <sup>3125</sup> <sup>3130</sup> <sup>3135</sup> <sup>3140</sup> <sup>3145</sup> <sup>3150</sup> <sup>3155</sup> <sup>3160</sup> <sup>3165</sup> <sup>3170</sup> <sup>3175</sup> <sup>3180</sup> <sup>3185</sup> <sup>3190</sup> <sup>3195</sup> <sup>3200</sup> <sup>3205</sup> <sup>3210</sup> <sup>3215</sup> <sup>3220</sup> <sup>3225</sup> <sup>3230</sup> <sup>3235</sup> <sup>3240</sup> <sup>3245</sup> <sup>3250</sup> <sup>3255</sup> <sup>3260</sup> <sup>3265</sup> <sup>3270</sup> <sup>3275</sup> <sup>3280</sup> <sup>3285</sup> <sup>3290</sup> <sup>3295</sup> <sup>3300</sup> <sup>3305</sup> <sup>3310</sup> <sup>3315</sup> <sup>3320</sup> <sup>3325</sup> <sup>3330</sup> <sup>3335</sup> <sup>3340</sup> <sup>3345</sup> <sup>3350</sup> <sup>3355</sup> <sup>3360</sup> <sup>3365</sup> <sup>3370</sup> <sup>3375</sup> <sup>3380</sup> <sup>3385</sup> <sup>3390</sup> <sup>3395</sup> <sup>3400</sup> <sup>3405</sup> <sup>3410</sup> <sup>3415</sup> <sup>3420</sup> <sup>3425</sup> <sup>3430</sup> <sup>3435</sup> <sup>3440</sup> <sup>3445</sup> <sup>3450</sup> <sup>3455</sup> <sup>3460</sup> <sup>3465</sup> <sup>3470</sup> <sup>3475</sup> <sup>3480</sup> <sup>3485</sup> <sup>3490</sup> <sup>3495</sup> <sup>3500</sup> <sup>3505</sup> <sup>3510</sup> <sup>3515</sup> <sup>3520</sup> <sup>3525</sup> <sup>3530</sup> <sup>3535</sup> <sup>3540</sup> <sup>3545</sup> <sup>3550</sup> <sup>3555</sup> <sup>3560</sup> <sup>3565</sup> <sup>3570</sup> <sup>3575</sup> <sup>3580</sup> <sup>3585</sup> <sup>3590</sup> <sup>3595</sup> <sup>3600</sup> <sup>3605</sup> <sup>3610</sup> <sup>3615</sup> <sup>3620</sup> <sup>3625</sup> <sup>3630</sup> <sup>3635</sup> <sup>3640</sup> <sup>3645</sup> <sup>3650</sup> <sup>3655</sup> <sup>3660</sup> <sup>3665</sup> <sup>3670</sup> <sup>3675</sup> <sup>3680</sup> <sup>3685</sup> <sup>3690</sup> <sup>3695</sup> <sup>3700</sup> <sup>3705</sup> <sup>3710</sup> <sup>3715</sup> <sup>3720</sup> <sup>3725</sup> <sup>3730</sup> <sup>3735</sup> <sup>3740</sup> <sup>3745</sup> <sup>3750</sup> <sup>3755</sup> <sup>3760</sup> <sup>3765</sup> <sup>3770</sup> <sup>3775</sup> <sup>3780</sup> <sup>3785</sup> <sup>3790</sup> <sup>3795</sup> <sup>3800</sup> <sup>3805</sup> <sup>3810</sup> <sup>3815</sup> <sup>3820</sup> <sup>3825</sup> <sup>3830</sup> <sup>3835</sup> <sup>3840</sup> <sup>3845</sup> <sup>3850</sup> <sup>3855</sup> <sup>3860</sup> <sup>3865</sup> <sup>3870</sup> <sup>3875</sup> <sup>3880</sup> <sup>3885</sup> <sup>3890</sup> <sup>3895</sup> <sup>3900</sup> <sup>3905</sup> <sup>3910</sup> <sup>3915</sup> <sup>3920</sup> <sup>3925</sup> <sup>3930</sup> <sup>3935</sup> <sup>3940</sup> <sup>3945</sup> <sup>3950</sup> <sup>3955</sup> <sup>3960</sup> <sup>3965</sup> <sup>3970</sup> <sup>3975</sup> <sup>3980</sup> <sup>3985</sup> <sup>3990</sup> <sup>3995</sup> <sup>4000</sup> <sup>4005</sup> <sup>4010</sup> <sup>4015</sup> <sup>4020</sup> <sup>4025</sup> <sup>4030</sup> <sup>4035</sup> <sup>4040</sup> <sup>4045</sup> <sup>4050</sup> <sup>4055</sup> <sup>4060</sup> <sup>4065</sup> <sup>4070</sup> <sup>4075</sup> <sup>4080</sup> <sup>4085</sup> <sup>4090</sup> <sup>4095</sup> <sup>4100</sup> <sup>4105</sup> <sup>4110</sup> <sup>4115</sup> <sup>4120</sup> <sup>4125</sup> <sup>4130</sup> <sup>4135</sup> <sup>4140</sup> <sup>4145</sup> <sup>4150</sup> <sup>4155</sup> <sup>4160</sup> <sup>4165</sup> <sup>4170</sup> <sup>4175</sup> <sup>4180</sup> <sup>4185</sup> <sup>4190</sup> <sup>4195</sup> <sup>4200</sup> <sup>4205</sup> <sup>4210</sup> <sup>4215</sup> <sup>4220</sup> <sup>4225</sup> <sup>4230</sup> <sup>4235</sup> <sup>4240</sup> <sup>4245</sup> <sup>4250</sup> <sup>4255</sup> <sup>4260</sup> <sup>4265</sup> <sup>4270</sup> <sup>4275</sup> <sup>4280</sup> <sup>4285</sup> <sup>4290</sup> <sup>4295</sup> <sup>4300</sup> <sup>4305</sup> <sup>4310</sup> <sup>4315</sup> <sup>4320</sup> <sup>4325</sup> <sup>4330</sup> <sup>4335</sup> <sup>4340</sup> <sup>4345</sup> <sup>4350</sup> <sup>4355</sup> <sup>4360</sup> <sup>4365</sup> <sup>4370</sup> <sup>4375</sup> <sup>4380</sup> <sup>4385</sup> <sup>4390</sup> <sup>4395</sup> <sup>4400</sup> <sup>4405</sup> <sup>4410</sup> <sup>4415</sup> <sup>4420</sup> <sup>4425</sup> <sup>4430</sup> <sup>4435</sup> <sup>4440</sup> <sup>4445</sup> <sup>4450</sup> <sup>4455</sup> <sup>4460</sup> <sup>4465</sup> <sup>4470</sup> <sup>4475</sup> <sup>4480</sup> <sup>4485</sup> <sup>4490</sup> <sup>4495</sup> <sup>4500</sup> <sup>4505</sup> <sup>4510</sup> <sup>4515</sup> <sup>4520</sup> <sup>4525</sup> <sup>4530</sup> <sup>4535</sup> <sup>4540</sup> <sup>4545</sup> <sup>4550</sup> <sup>4555</sup> <sup>4560</sup> <sup>4565</sup> <sup>4570</sup> <sup>4575</sup> <sup>4580</sup> <sup>4585</sup> <sup>4590</sup> <sup>4595</sup> <sup>4600</sup> <sup>4605</sup> <sup>4610</sup> <sup>4615</sup> <sup>4620</sup> <sup>4625</sup> <sup>4630</sup> <sup>4635</sup> <sup>4640</sup> <sup>4645</sup> <sup>4650</sup> <sup>4655</sup> <sup>4660</sup> <sup>4665</sup> <sup>4670</sup> <sup>4675</sup> <sup>4680</sup> <sup>4685</sup> <sup>4690</sup> <sup>4695</sup> <sup>4700</sup> <sup>4705</sup> <sup>4710</sup> <sup>4715</sup> <sup>4720</sup> <sup>4725</sup> <sup>4730</sup> <sup>4735</sup> <sup>4740</sup> <sup>4745</sup> <sup>4750</sup> <sup>4755</sup> <sup>4760</sup> <sup>4765</sup> <sup>4770</sup> <sup>4775</sup> <sup>4780</sup> <sup>4785</sup> <sup>4790</sup> <sup>4795</sup> <sup>4800</sup> <sup>4805</sup> <sup>4810</sup> <sup>4815</sup> <sup>4820</sup> <sup>4825</sup> <sup>4830</sup> <sup>4835</sup> <sup>4840</sup> <sup>4845</sup> <sup>4850</sup> <sup>4855</sup> <sup>4860</sup> <sup>4865</sup> <sup>4870</sup> <sup>4875</sup> <sup>4880</sup> <sup>4885</sup> <sup>4890</sup> <sup>4895</sup> <sup>4900</sup> <sup>4905</sup> <sup>4910</sup> <sup>4915</sup> <sup>4920</sup> <sup>4925</sup> <sup>4930</sup> <sup>4935</sup> <sup>4940</sup> <sup>4945</sup> <sup>4950</sup> <sup>4955</sup> <sup>4960</sup> <sup>4965</sup> <sup>4970</sup> <sup>4975</sup> <sup>4980</sup> <sup>4985</sup> <sup>4990</sup> <sup>4995</sup> <sup>5000</sup> <sup>5005</sup> <sup>5010</sup> <sup>5015</sup> <sup>5020</sup> <sup>5025</sup> <sup>5030</sup> <sup>5035</sup> <sup>5040</sup> <sup>5045</sup> <sup>5050</sup> <sup>5055</sup> <sup>5060</sup> <sup>5065</sup> <sup>5070</sup> <sup>5075</sup> <sup>5080</sup> <sup>5085</sup> <sup>5090</sup> <sup>5095</sup> <sup>5100</sup> <sup>5105</sup> <sup>5110</sup> <sup>5115</sup> <sup>5120</sup> <sup>5125</sup> <sup>5130</sup> <sup>5135</sup> <sup>5140</sup> <sup>5145</sup> <sup>5150</sup> <sup>5155</sup> <sup>5160</sup> <sup>5165</sup> <sup>5170</sup> <sup>5175</sup> <sup>5180</sup> <sup>5185</sup> <sup>5190</sup> <sup>5195</sup> <sup>5200</sup> <sup>5205</sup> <sup>5210</sup> <sup>5215</sup> <sup>5220</sup> <sup>5225</sup> <sup>5230</sup> <sup>5235</sup> <sup>5240</sup> <sup>5245</sup> <sup>5250</sup> <sup>5255</sup> <sup>5260</sup> <sup>5265</sup> <sup>5270</sup> <sup>5275</sup> <sup>5280</sup> <sup>5285</sup> <sup>5290</sup> <sup>5295</sup> <sup>5300</sup> <sup>5305</sup> <sup>5310</sup> <sup>5315</sup> <sup>5320</sup> <sup>5325</sup> <sup>5330</sup> <sup>5335</sup> <sup>5340</sup> <sup>5345</sup> <sup>5350</sup> <sup>5355</sup> <sup>5360</sup> <sup>5365</sup> <sup>5370</sup> <sup>5375</sup> <sup>5380</sup> <sup>5385</sup> <sup>5390</sup> <sup>5395</sup> <sup>5400</sup> <sup>5405</sup> <sup>5410</sup> <sup>5415</sup> <sup>5420</sup> <sup>5425</sup> <sup>5430</sup> <sup>5435</sup> <sup>5440</sup> <sup>5445</sup> <sup>5450</sup> <sup>5455</sup> <sup>5460</sup> <sup>5465</sup> <sup>5470</sup> <sup>5475</sup> <sup>5480</sup> <sup>5485</sup> <sup>5490</sup> <sup>5495</sup> <sup>5500</sup> <sup>5505</sup> <sup>5510</sup> <sup>5515</sup> <sup>5520</sup> <sup>5525</sup> <sup>5530</sup> <sup>5535</sup> <sup>5540</sup> <sup>5545</sup> <sup>5550</sup> <sup>5555</sup> <sup>5560</sup> <sup>5565</sup> <sup>5570</sup> <sup>5575</sup> <sup>5580</sup> <sup>5585</sup> <sup>5590</sup> <sup>5595</sup> <sup>5600</sup> <sup>5605</sup> <sup>5610</sup> <sup>5615</sup> <sup>5620</sup> <sup>5625</sup> <sup>5630</sup> <sup>5635</sup> <sup>5640</sup> <sup>5645</sup> <sup>5650</sup> <sup>5655</sup> <sup>5660</sup> <sup>5665</sup> <sup>5670</sup> <sup>5675</sup> <sup>5680</sup> <sup>5685</sup> <sup>5690</sup> <sup>5695</sup> <sup>5700</sup> <sup>5705</sup> <sup>5710</sup> <sup>5715</sup> <sup>5720</sup> <sup>5725</sup> <sup>5730</sup> <sup>5735</sup> <sup>5740</sup> <sup>5745</sup> <sup>5750</sup> <sup>5755</sup> <sup>5760</sup> <sup>5765</sup> <sup>5770</sup> <sup>5775</sup> <sup>5780</sup> <sup>5785</sup> <sup>5790</sup> <sup>5795</sup> <sup>5800</sup> <sup>5805</sup> <sup>5810</sup> <sup>5815</sup> <sup>5820</sup> <sup>5825</sup> <sup>5830</sup> <sup>5835</sup> <sup>5840</sup> <sup>5845</sup> <sup>5850</sup> <sup>5855</sup> <sup>5860</sup> <sup>5865</sup> <sup>5870</sup> <sup>5875</sup> <sup>5880</sup> <sup>5885</sup> <sup>5890</sup> <sup>5895</sup> <sup>5900</sup> <sup>5905</sup> <sup>5910</sup> <sup>5915</sup> <sup>5920</sup> <sup>5925</sup> <sup>5930</sup> <sup>5935</sup> <sup>5940</sup> <sup>5945</sup> <sup>5950</sup> <sup>5955</sup> <sup>5960</sup> <sup>5965</sup> <sup>5970</sup> <sup>5975</sup> <sup>5980</sup> <sup>5985</sup> <sup>5990</sup> <sup>5995</sup> <sup>6000</</sup>

한글

090292

32 \* 23 = 736

9:34 절을 인정함 {C} 34절을 본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비형 자료를 제시한 부분에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몇몇 주석자들 (Allen, Klostermann, Zahn) 에 의하면 이 문장은 12:24이나 눅 11:15에서 가져와 이곳에 삽입시킨 것으로 본다. 반면에 (존의) 짧은 본문에 대한 증거 자료는 오로지 서방적 (Western) 이며 비교적 빈약한 상태이다. 게다가 이 구절은 10:25을 위해 독자로 하여금 마오의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위원회의 대다수는 이 절을 포함하고 있는 증거 자료들의 가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10:3  $\Theta\alpha\delta\delta\alpha\iota\omicron\varsigma$  {B} "레베오 (Lebbaeus)라 불리는 다대오 (Thaddaeus)" 나 "다대오 (Thaddaeus)라 불리는 레베오 (Lebbaeus)"란 이문융합 (異文融合: Conflation)된 득법의 기원을 설명하기는 쉽지만  $\Theta\alpha\delta\delta\alpha\iota\omicron\varsigma$  나  $\Lambda\epsilon\beta\beta\alpha\iota\omicron\varsigma$  중에서 어느것이 원래의 득법인지 분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증거 자료, 서방 증거 자료, 가이사라 증거 자료, 에집트 증거 자료 등의 대표적인 초기 본문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근거해서 위원회는  $\Theta\alpha\delta\delta\alpha\iota\omicron\varsigma$ 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Sy<sup>r</sup>에 있는 "야고브의 아들 유다"란 득법은 눅 6:16 (=행 1:13)에서 왔을 것이다. 몇몇의 Old Latin 사본들 내에 있는 Judas Zelotes란 이름 (Ravenna에 있는 Baptistery < Battistero degli Ortodossi >에 5세기 경에 모자이크로 새겨진 같은 이름을 비교해 보라)은 "(열심당원)으로"

한글

090892

32 \* 23 = 736

불리던 시문"이란 누가의 목록 안에 있<sup>던</sup> 이전 이름에 등화  
된 형태일 수 있다.

10:4 'Ισκαριώτης {B} 잘못된 이름에 대한

불문적인 문제는 2 이름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Ισκαριώτης ('Ισκαριώθ)란 이름은 "가  
롯(Kerioth) 지방 출신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קִרְיֹתָיִם קֵרְיֹתָיִם에서 파생된 단어로 본다. 이런 입장을 지지

하고 있는 것이 ἀπὸ Καρυώτου (요 6: 71, <sup>15</sup>\*, <sup>16</sup>⊕, <sup>17</sup>f, syr hmgar,  
12: 4, D; 13: 2, D, it<sup>e</sup>; 14: 22, D)란 독법이다. 반면에

10 Σκαριώτης (D의 독법임; 26: 14; 막 14: 10)에서 출발하고  
있는 다른 학자들은 "가롯<sup>의</sup> 또는 앞치마", "강도<sup>의</sup> 또는 안살자<sup>의</sup>  
"사기관<sup>의</sup> 또는 반역자", "얼굴색이 붉은 사람" 등의 의미를 가  
진 단어들을 포함하여 가능한(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한) 여러

15 독법들에 의<sup>해</sup> 더욱 복잡하게 얽혀진다. 이곳에서 몇몇의 좋은  
증거 자료들은 유다의 아버지의 칭호를 덧붙이고 있다.

현재의 단락에서 위원은 첫글자가 이오타(I)로 시작되는  
이름을 지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희잡어 증거 자료들과  
그것들의 연대를 짚잡해서, 우세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는

20 'Ισκαριώτης 선택하기로 했다.

10:8 νεκροὺς ἐγείρετε νεκροὺς ἐγείρετε

란 절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이문 독법들이 있다. (1  
) C<sup>B</sup>, L, X, Y, Γ, ⊕, Π, 약 150개의 소문자 사본들, syr<sup>B, Pal</sup>,

번호

090092

5 cop<sup>sa</sup>, arm, eth<sup>2 mss</sup>, geo<sup>1, B</sup>, Eusebius Basil 등을 포함해  
 시 상당한 수의 증거 자료들 (대부분 후기 것들)에 이 구절  
 이 할락되어 있다. (2) 다른 증거 자료들에는 이 구절이  
 10 καθαρῖς τε 위에 언급되고 있다 (16, 348, 372, 1093, 1579,  
 Textus Receptus가 이 경우를 따랐다). (3) ἐκβάλλετε<sup>v</sup>  
 위에 언급한 자료들도 있다 (P, W, Δ, 566, 1513, 2145, syr<sup>h</sup>).  
 (4) ἀσθενοῦντας 앞에 언급한 자료도 있다 (vg<sup>ms</sup>). (5  
 ) 여기서 본문으로 채택한 독법은 <sup>v</sup>, B, C\*, D, N, Σ, Φ,  
 f<sup>1</sup>, f<sup>B</sup>, 22, 33, 157, 349, 399, 543, 565, it<sup>a, b, c, h, k, l, m</sup>, vg,  
 15 syr<sup>s</sup>, cop<sup>bo</sup>, eth, geo<sup>A</sup>, arab, Cyril, Hilary 등을  
 포함해서 ~~폭넓은~~ 다양하고 폭넓은 증거 자료들에 의해 지지받  
 고 있는 것이다. ~~카톨릭~~  
 가끔 단어의 위치나 구절의 위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삽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어날 수  
 20 드 있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순서의 다양성은 우연히 (이러한  
 는 구절들의 끝부분 (어미語尾)이 유사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연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개의 구절들을 좀더 직결한 순서로  
 배치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좀더 강조하는 순서로 배치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아래는 단위를 셋으로  
 묶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래서 본문에 있는 네개의 구절은 필경사  
 들에 의해 첨가된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필경사  
 들이 대대모호한 명령 (여기서 죽은 자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에



한

09092

이 구절을 읽어서 <sup>10</sup> ~~했다~~.  
 10: 42  $\kappa\omicron\tau\eta\rho\iota\omicron\nu$   $\psi\upsilon\chi\eta\sigma\upsilon$   $\mu\acute{o}\nu\omicron\nu$  {C}  $\epsilon\upsilon\delta\acute{o}\tau\omicron\varsigma$   
 타 한께 쓰인 특법은 마차적인 평행 본문 (막 9: 41, 여기서  
 본문은 확정적이다) 에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좀더 구체적일  
 5 용어를 쓰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mu\acute{o}\nu\omicron\nu$   
 이란 단어는 마차의 본문에는 없는 것으로서 전혀 마차적  
 인 특색을 보여준다 (공관 복음에서 마태는  $\mu\acute{o}\nu\omicron\nu$  이란 부사를  
 10 ~~한번~~ 사용했고 마차는 두번 누가는 단지 한번만 사용했다).  
 11: 2  $\chi\rho\iota\sigma\tau\omicron\upsilon$  {C} 여기서  $\chi\rho\iota\sigma\tau\omicron\upsilon$ 란 단어는  
 10 Messiah란 의미로 쓰였다. 어떤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text{I}\eta\sigma\upsilon\sigma$ 란 이름을~~  
 3절 (이 절에서 요한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확신하지 못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 3절을 예수의 행위  
 가 실제로 "메시아의 과업" 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놓고 선포하  
 기에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다) 과 날카롭게 대조시키기  
 15 위하여  $\text{I}\eta\sigma\upsilon\sigma$ 란 이름으로 바꾸어 쓴 것 같다. 또한 Bezae  
 사본은  $\text{I}\eta\sigma\upsilon\sigma$ 를 ~~שמעאיקה~~ ~~קֵּוֵן~~  $\kappa\upsilon\rho\iota\omicron\varsigma$  나  $\alpha\upsilon\tau\omicron\varsigma$ 를 예수란 이름  
 으로 대체시킨 경우가 무려 51회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1: 9  $\text{i}\delta\epsilon\acute{\iota}\nu$ ;  $\pi\rho\omicron\phi\eta\tau\eta\nu$  {C} 본문적인 문체  
 는 "무엇?" 이나 "왜?"란 의미를 지닌 의문사  $\tau\acute{\iota}$ 를 취  
 20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진다. 9절과 8절  
 의 연태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1) "너희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광야를 나갔느냐? 바위에  
 돌들이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한글

090892

32\*23=736

다. Πάντων과 함께 쓰인 특법들은 누가에 있는 정행본문과  
 훨씬 더 등화된 것임을 보여준다.

11:23 μή εως ουρανού ὑψωθήσῃ {B}

고문서학자(古文學學的)으로 본 특법이 전(前) 비잔틴 계열  
 에 해당하는 최근의 증거 자료들 안에서 이렇게 보존되어 왔  
 으며, 이렇해서 유연하게 변경되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Καταβήσῃ에 이어 나오는 만이 μή의 첫글자가 유연히  
 탈락되었다. 그 결과로 H를 관사 ἡ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관  
 계대명사 ἣ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등사를 ὑψωθήσῃ로 바꾸

던지 아니면 ὑψώθῃς로 바꾸게 될 것이다. 원문에 ἡ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본질적인 사본 작업인 면  
 에서 밀어낼 수 있는 상황들은 분석해볼 때에 더욱 확실해지

며, 결국 이런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명쾌한 의적 증거를 더  
 욱 확실하게 해준다. 즉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  
 지 높이지겠느냐?"란 표현의 갑작스런 전환은 예수가 분명한

이러한 구사하는 방법으로 날카로우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다. 반  
 면에 대부분의 필경사들은 "그리고 너 하늘까지 높아진 가버  
 나움아..."란 좀더 정방한 표현을 좋아했을 것이다.

11:23 καταβήσῃ {D}

이 등사를 용납하는 것은 "너는 좌를 당하게 될 것  
 이다"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너는 좌를 당하게 될 것  
 이다"로 해석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사본 작업시 있을 법한 가능성(회귀한 등사를 일성적  
 인 등사로 바꾸어서 의미를 명쾌하게 할려는 가능성)에 대해

한글

090992

32 \* 23 - 736

5 10 15 20 25 30

관작은 결정적인 것이 불된다 (눅 10:15의 죽음을 보라). 사 14:15 본문 (여기서는 καταβύσσει로 읽는다)에 등화시킨 것이라 고도 볼 수 있지만, 위윌히의 대다수는 이 등사를 원본이라고 선택했다. 예나하면 이 등사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과 사방 본문 계열 중에서도 <sup>위윌히의</sup> 때를 지닌 본문에 의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12:4 ἔφαγον {C} 배룩 ἔφαγον이 B, 481V 등에 의해에만 입증되고 있지만, 비-평행적 독법 (non-parallel reading) <sup>P34V</sup>이 판이한 ἔφαγεν으로 변경된 것임이 분명하다. 본문은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2차 2차<sup>V</sup> 함께 있었던 자들이 먹었던 잔술병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12:15 [ὄχλοι] πολλοί {C} 유사문어 (類似文法: Homoeoteleuton)에 의해 ὄχλοι가 무연하게 탈락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하 "많은 무리", "큰 무리" (예 4:25; 8:1; 13:2; 15:30; 19:2)란 친숙한 표현에 영향을 받은 필경사들이 πολλοί 앞<sup>쪽</sup>이나 뒤쪽에 ὄχλοι란 판이를 권가 지킴으로 판정한 πολλοί (이 독법은 초기 알렉산드리아 증거 자료들과 후기 사방 증거 자료들에 의해 입증된다)를 부각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12:25 εἰδώς δέ {C} 주어 <sup>가 되는</sup> ὁ Ἰησοῦς는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필경사들에 의해 ~~삽입~~된 자연스러운 첨가어였다. 만일 이 판이들이 원본에 든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sup>의도적으로</sup> 생략시켰을 리가



한글

090992

32\*23=736

X

5                    10                    15                    20                    25                    30  
 문들이 불문의 구조를 가정법과 함께 쓰인  $\epsilon\iota\alpha$ 로 변경시켰다.  
 13:35  $\delta\iota\alpha$  { C }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란 특  
 법은 사내산 사본, 여러개의 중요한 손문자 사본들, 한 에티오피아  
 사본, 유세비우스 (Eusebius)와 제롬 (Jerome)이 알고  
 5    있었던 복음서 사본들 등에 의해 입증된다. 제롬은 또한 포피리  
 리 (Porphyry)가 마태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tam imperitus fuit). 사본 작업시  
 생겨날 가능성들을 고려해보면 좀더 반해한 특법인 이 특법에  
 10    곧 관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너무 분명한 오류는 필경사들  
 에 의해 교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 9; 막 1: 2<sup>1</sup> 등  
 을 비교해 보라).  
 반면에 어떠한 예언자의 이름도 원문에 없었다면, 여러 필경  
 사들이 실제로 다른 곳에서 있었던 경우 (1: 22; 2: 5; 마  
 : 4; 행 1: 48 등의 주석을 보라)처럼 가장 잘 알려진 예언  
 15    자의 이름을 제대로 삽입시켰을 수도 있다. 또한 실제로 인  
 용한 곳 (시 1: 2)을 조사해보면 이런 특<sup>1</sup>자<sup>1</sup>인 "아삼"이라는  
 이름을 첨가시켰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롬이 제안한 것처럼  
 그러한 예언자 (천주, 마하 29: 30)를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특  
 20    자들은 <sup>2</sup>상당히 친숙해 있는 "이사야"란 이름으로 변경시켰을  
 수도 있다. 결론하고 있는 자료들 가운데  $\text{A}\rho\acute{\alpha}\phi$ 으로 읽고 있  
 는 자료들은 많다. ~~이~~  
 서로 상충되는 사본 작업시의 가능성들 때문에 위원회는 우  
 세한 의견 증거를 따르기로 했다.



한글

090992

이이이이이

이름은 본래 정확한 키브리아 (Κιβύρια)에 대한 갈릴리시 발음 (Κιβύρι)을 제시한 것으로서 막 6:3에서 마태의 본문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Ιωάννης란 대용 단어는 필경사의 부주의로 생겨난 것이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언급되는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Ιωάννης και 'Ιωάνης란 두 발음은 분명한 이문융합 (異文融合: Conflation)이며 나중에 삭제되었다.

14:1

ΤΕΤΡΑΡΧΩΝ

행 13:1의 주석을 참조하라.

14:3

Ἡρώδης {C}

ΤΟΤΕ는 마태가 즐겨 사용

하는 단어 (90회; 마가는 6회; 누가는 14회; 요한은 10회)라서 원문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위위히는 본문적 기반이 약한

Ἡρώδης ΤΟΤΕ란 두 발음보다는 다양한 <sup>경계의</sup> 본문 증거들이 입증하고 있는 짧은 본문이 더욱 신빙성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사는 3절이 반영된 상황이 1절과 2절의 상황보다 앞서서 일어난 <sup>상황</sup>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삽입된 것으로 보

14:3

Φιλιππου {B}

모세 푸스에 따르면 (참조

그의 책 Antiquities, xviii. v. 4) 헤로디아의 첫 남편은 (헤롯 대왕과 Simon의 딸 Mariamn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헤롯이라는 사본이 있으며, 반면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한 <sup>사본</sup> 사본은 당시의 영주 (領主) [헤롯] 빌립 (눅 3:1)이었다. 막 6:14에서 두 사본만 제외하고 모든 사본들은

빌립을 헤로디아의 첫 남편으로 부르곤 있다 (P<sup>45</sup>와 <sup>사본</sup> 사본 47에는

한글

09092

32\*23-736

5 발립이간 이름이 탈락되어 있다). 결국 모세푸스는 헤로디아의  
 첫번째의 완전한 이름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마가는 헤로디아의  
 남편과 사위를 혼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눅 3:19에서 여러 증  
 거 자료들 (A, C, K, W, 33, 565, syr<sup>P</sup>, cop<sup>SAPT, BO</sup> 등을 포  
 6 환해서) 에는 τοῦ ἀδελφοῦ αὐτοῦ 앞에 Φιλίππου란  
 단어가 들어 있다. 그러나 좀더 탁월한 본문 증거들 (X, B, D,  
 L, Γ, Δ, Ξ, Old Latin, Vulgate, Gothic 등을 포함  
 해서) 에는 이 단어가 없다.

10 그래서 마태는 14:3에서 마가의 원문을 따라서 Φιλίππου  
 을 썼던 것 같다. 반면에 여러 사방 증거 자료들은 눅 3:19  
 에 있는 짧은 본문이 동화(同化)되어서 마태의 설명을 모세  
 푸스의 설명과 일치시킨 것 같다.

X 14:9 λυπηθεὶς ὁ βασιλεὺς διὰ {B} 알  
 렉산드리아 본문 제명, 사방 본문 제명, 가이사라 본문 제명  
 15 등의 대표적인 중요한 본문들이 입증하고 있는 특성은 어떤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즉 διὰ와 함께 쓰인 구절이 λυπηθεὶς  
 와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ἐκέλευσεν과 연관되는 것인지?  
 ). 이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경사들은 직결적(hypotactic)  
 구문(“그 양은 그의 맹세와 그가 함께 ~~있~~ <sup>있</sup>던 자들 때문에  
 20 근심하면서 내어 주라고 명했다”)을 좀더 구이체적인 병렬적  
 (paratactic)인 구문(“그래서 그 양은 근심했다; 그러나 그  
 의 맹세와 그가 함께 ~~있~~ <sup>있</sup>던 자들 때문에 그는 ...라고  
 명했다”)으로 변경시키면서 ὅτε를 삽입했다.

090992

14:12  $\pi\tau\omega\mu\alpha$  필경사들이 마가의 평행본문(6:29)에 따라서  $\pi\tau\omega\mu\alpha$ 를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필경사들이 이 단어를 흔하게 사용했던  $\sigma\omega\mu\alpha$ 를 바꾸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에는 타점 증거의 기준에서 볼 때 먼저 언급한 설명이 나중에 언급한 설명보다 더욱 확실하게 입증된다. ( $\pi\tau\omega\mu\alpha = \lambda, B, C, D, L, \Theta, \Sigma, f, f^b, 22, 700, it^k, syr^{c,s,p}, cop^{bo}, arm, geo; \sigma\omega\mu\alpha = W, X, \Gamma, \Delta, \Pi, \Phi, 28, 565$ , 대부분의 소문자 사본들, 대부분의 Old Latin, vg,  $syr^h, cop^{sa}$ ).

14:12  $\alpha\upsilon\tau\acute{o}[V]$   $\alpha\upsilon\tau\acute{o}\nu$ 을 입증하고 있는 자료들은 단지  $\lambda^*, B, \text{마가}, it^a, syr^{c,s}, eth$  뿐인 반면에 타점 증거는  $\alpha\upsilon\tau\acute{o}$  (혹은 발음상 같음  $\alpha\upsilon\tau\omega$ )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필경사들이  $\pi\tau\omega\mu\alpha$  (또는  $\sigma\omega\mu\alpha$ )와 문법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인칭대명사 ( $\alpha\upsilon\tau\acute{o}\nu$ )을 비인칭대명사 ( $\alpha\upsilon\tau\acute{o}$ )로 변경시켰을 확률은 크다. 타점 증거와 사본 작업 상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사이에 있는 위와 같은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alpha\upsilon\tau\acute{o}[V]$ 으로 인쇄하기로 결정했다.

14:22  $\epsilon\upsilon\theta\acute{\epsilon}\omega\varsigma$  {C} 어떤 주석가들은 필경사가  $\epsilon\upsilon\theta\acute{\epsilon}\omega\varsigma$ 를 마가 본문(막6:45)에 따라서 제시한 것으로 여겼지만, 약간의 증거 자료를 가운데 이 특별히 활락된 것은 유연히 발생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

14:22  $\mu\alpha\theta\eta\tau\acute{\alpha}\varsigma$  {B} 위원회는 특별히 필경사들이 막6:45에 있는 평행본문에 따라  $\alpha\upsilon\tau\acute{o}\nu$ 를 제시했을 수

한

090992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도 가치있는 미적 증거는 짧은 특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4:24 σταδίου πολλοὺς ἀπὸ τῆς γῆς

ἀπέειχεν {D} 마태의 이 본문이 또한 본문 (σταδίου  
εἴκοσι πέντε ἢ τριάκοντα 요 6:19)을 따르던 필

경사들에 의해서 등화(同化)된 것인지 아니면 마가 본문 (  
ἦν τὸ πλοῖον ἐν μέσῳ τῆς θαλάσσης 막 6

:41)을 따르던 필경사들에 의해 등화된 것인지 밝혀는 것이  
문제이다. 주로 등화되는 과정은 보편복음과 공관복음 사이에서

생기기 보다는 공관복음서들 안에서 자주 나타나며  
또한 보편적인 여행 구절은 (희랍어 증거 자료들 안에 σταδίου

란 말이만을 포함해서) 아주 적기 때문에 B, f<sup>3</sup>, al 의 특  
법은 다른 특법들이 생기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14:24 [ὁ Ἰησοῦς] αὐτοῖς {D} 필경사들이

등사의 주의를 밝혀주기 위해서 ὁ Ἰησοῦς 를 자주 삽입  
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는 만일 B 사본

에 보존된 —가 특법이 원문이라면 짧은 특법은 유사문미 (類  
似文尾; ΟΙΤΑΥΤΟΙΣ) 때문에 ὁ Ἰησοῦς 가 우연하게 탈

락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탈락된 후에 ὁ Ἰησοῦς 는  
다시 αὐτοῖς 뒤에 재삽입되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들을

균형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대다수는 ὁ Ἰησοῦς 를  
괄호로 묶어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스케너  
읽음

다른서제로

090992

14:29 καὶ κησθεν {B} καὶ κησθεν 이관 득  
 법 ("베드로는 물위로 걸었다 그리고 예수에게 왔다")은 너  
 무 많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εησθεν ("베드  
 로는 예수에게 인리고 물 위로 걸었다")으로 변경시켰다. <sup>1\*</sup>  
 5 사본의 득법이 같으로는 이문융합(異文融合: conflation) 처  
 량 보이지만, 필경사에 의해 제시된 단순한 주석적인 부연 설  
 명일 수도 있다. eth<sup>ro</sup>의 득법은 번역상 오류이다.  
 14:30 ἰσχυρόν [ισχυρόν] {C} 의적인 증거가  
 10 기원하며 볼 때 Δ, B\*, OB, 33, cop<sup>sa, bo, fay</sup> 등의 득법이 원문  
 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월리의 대다수는 이 득법이 지나칠  
 정도로 예장된 본문적인 성향만을 따르고 있다고 여겼으며,  
 여기서 2 개문 득법은 한 본문 계열의 원문(元祖)가 되는  
 문에서 우연히 활락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내적인 근찰을 통하여 볼 때, 필경사들이 극적인 표  
 15 를 주기 위해서 (W 사본에 σφόδρα를 첨가한 것처럼)  
 ισχυρόν을 첨가시킨 것이라곤 주장할 수도 있지만, 위월리  
 의 대다수는 베드로의 두려움과 커져 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  
 여 본래 이 단어가 필연했다고 보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다. 이  
 런 상충되는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위월리는 ισχυρόν 이  
 20 란 단어를 괄호로 묶어서 본문에 두이르 결정했다.  
 15:4 εἶπεν {C} 3 절에 있는 τὴν ἐντολήν  
 τοῦ Θεοῦ란 구절 때문에 필경사들이 "하나님께서 ... 말  
 하셨기 때문에"란 문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091192

5 10 15 20 25 30

이르기를 "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말  $\acute{\epsilon}\nu\epsilon\tau\epsilon\iota\lambda\alpha\tau\omicron\ \lambda\acute{\epsilon}\gamma\omega\nu$   
 이란 특법이 원문이라면 상당히 주관적인 단어  $\acute{\epsilon}\iota\pi\epsilon\nu$  (확인  
 한 본문인 막 1:10에서  $\acute{\epsilon}\iota\pi\epsilon\nu$ 의 주어는  $M\omega\upsilon\sigma\eta\varsigma$ 이다)으로  
 바꾸어 쓴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15:6  $\tau\omicron\nu\ \pi\alpha\tau\acute{\epsilon}\rho\alpha\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D} 한편으로 "또  
 는 그의 여러 아들 우절은 바로 앞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인권의 있는 것을 무시했던 필명사들이 본문에도 그럴 필요  
 가 있다고 강연하게 여겨서 쓴 것이라 주장할 수 있  
 다. 다른 한편으로  $\eta$  [또는  $\kappa\alpha\iota$ ]  $\tau\acute{\eta}\nu\ \mu\eta\tau\acute{\epsilon}\rho\alpha\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10 략락된 이유는 (앞에 있는  $\tau\omicron\nu\ \pi\alpha\tau\acute{\epsilon}\rho\alpha\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와 유사성  
 때문에) 우절이 빠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자주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를 문체적인 면에서 고의적으로 생략시켰다고 설명할  
 수 있다. 사본 작성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고려해 볼 때 위원회는 외적 증거가 유세하라고 판단되는

15  $\eta$  근거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tau\acute{\eta}\nu\ \acute{\epsilon}\nu\tau\omicron\lambda\omicron\gamma\acute{\eta}\nu$ 은

15:6  $\tau\omicron\nu\ \lambda\omicron\gamma\omicron\nu$  {B} 3절에 어울리게 하기  
 위하여  $\tau\acute{\eta}\nu\ \acute{\epsilon}\nu\tau\omicron\lambda\omicron\gamma\acute{\eta}\nu$ 이 제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tau\omicron\nu\ \lambda\omicron\gamma\omicron\nu$ 을 대신하여 바꾸어 쓴 것인지 아니면  $\tau\omicron\nu\ \nu\omicron\mu\omicron\nu$   
 20  $\nu\omicron\mu\omicron\nu$ 을 대신하여 바꾸어 쓴 것인지 알아내기는 상당히 어렵  
 다.  $\nu\omicron\mu\omicron\nu$ 을 원문이라고 보고  $\lambda\omicron\gamma\omicron\nu$ 은 막 1:13에  $\acute{\epsilon}\nu\tau\omicron\lambda\omicron\gamma\acute{\eta}\nu$ 이라  
 고 제시된 단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lambda\omicron\gamma\omicron\nu$   
 을 지지하고 있는 외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 때  
 서 이 구절은 구체적인 제명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에

하

091292

32\*23=736

5 10 15 20 25 30

X) 있는 λόγον을 ἔνταλῆν이나 νόμον으로 고쳐시켰다고 이해했다  
 15:14 τυφλοί εἰσιν ὁδηγοὶ [τυφλῶν] {C}

B와 D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τυφλοί εἰσιν ὁδηγοὶ란  
 특법이 타당 증거에 기준하여 볼 때 원문이라고 볼 수도 있  
 5 지만, 다른 특법들이 생기게 된 이유 (문장을 추색하면서 생긴  
 교정이나, 근문서학(古文書學)적인 면에서 볼 때 구절의 유사  
 성 때문에 발생한 실수 등)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  
 는 특법은 τυφλοί εἰσιν ὁδηγοὶ τυφλῶν과 ὁδηγοὶ  
 εἰσιν τυφλοί τυφλῶν이다. 이 두가지 특법 중에서 위원

10 이는 유세하게 입증되고 있는 앞 구절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러나 동시에 B와 D가 입증하고 있는 특법을 고려해 볼 때  
 τυφλῶν을 괄호로 묶어두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X) 15:15 τὴν παραβολὴν [ταύτην] {C} 위원  
 의 대다수는 다양한 여러 증거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  
 15 으며, 다른 증거 자료들의 분문에 ταύτην이 없는 이유는 이  
 단어를 부적절하다 (『비유』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하나씩 시  
 절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생각한 필경사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특법을 선  
 택하기로 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ταύτην이 생략되어 있는  
 20 증거 자료들 (C, B, f<sup>4</sup>, 700, A92, cop<sup>sa</sup>, geo<sup>B</sup>, Origen)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기로 했다.

X) 15:26 ἔστιν καλόν {C} ἔξοστιν이란 원  
 문이 타당 불문인 막<sup>7</sup>:27 (여기서 사본들은 ἔστιν καλόν이란

번호 091292 32\*23=736

5 10 15 20 25 30

특법을 갖고 있기로 하고 καλόν ἔστιν이란 특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에 영향을 받아서 ἔστιν καλόν 이나  
 καλόν ἔστιν 이란 특법으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  
 지만, 위원회는 <sup>이것이</sup> ἔξῃς ἔστιν이 예수의 제자를 강조 (적절한 것에서  
 5 부각시키거나 <sup>이것이</sup> 함의적인 것에 맞춘 것)하기 위해서 몇몇의 서방  
 증거 자료들 안으로 소개되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고 여겼다.

15:31 λαλοῦντας, καλοῦς ὑγιείς {C}

10 이 절에 대한 사본들에는 여러가지 변형들 (이런 경우에는 무  
 연하게, 이런 경우에는 근의적으로)이 반영되어 있다. καλοῦς  
 ὑγιείς란 구절들이 (비록 연속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30절에  
 있는 네가지 표현과 수를 일치시키면서 연속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문이들  
 15 <sup>이것에서</sup>는 생략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불구자가 건넌 채지며 절문발이가 것은 다른 표현은 중복된 표현  
 으로서 여여지기 때문이다. καφός의 이문적인 의미 ("방어의"  
 와 "키머거리")는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에 있는 λαλοῦντας  
 와 B와 소수의 다른 증거 자료들에 있는 ἀκοῦντας 간의  
 이문들 (N, O, D에는 두 분 A들이 이문 융합(融合)되어 있  
 20 다)에 대해 설명해준다. 대부분 회답이 성구집에 있는 특법은  
 막 7:31 (ἀκαλοῦς λαλεῖν)에 있는 평행본문에 영향을 받  
 은 것임을 보여준다.

본문에 제시한 특법은 서방 증거 자료들(D)과 가이시어

한글

091292

32 \* 23 = 736

증거 자료들 ( $\Theta$ ,  $f^{13}$ ;  $\mu\alpha\chi$ )을 삽입시킴)을 포함하여 폭넓게 입증되고 있다.

15: 36  $\mu\alpha\theta\eta\tau\alpha\iota\varsigma$  {B} 여러 증거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의 첨가는 막자: 6에 있는 평행본문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15: 38  $\gamma\upsilon\nu\alpha\iota\kappa\omega\nu$  και  $\pi\alpha\iota\delta\acute{\iota}\omega\nu$  {D} 의 경우 증거나 내적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두 독법들은 서로 비슷하게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법들 중에 선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gamma\upsilon\nu\alpha\iota\kappa\omega\nu$  και  $\pi\alpha\iota\delta\acute{\iota}\omega\nu$ 이란 독법은 여러 다양한 본문 계열들을 대표하는 다양한 증거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반면에  $\pi\alpha\iota\delta\acute{\iota}\omega\nu$  και  $\gamma\upsilon\nu\alpha\iota\kappa\omega\nu$ 을 지지하고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서방적인 특징 (마 14: 12에 서도 D,  $\langle \Theta, 1 \rangle$ , 1582, Old Latin, syr<sup>s</sup>, cop<sup>sa, bo</sup>, geo 등은  $\pi\alpha\iota\delta\acute{\iota}\omega\nu$  και  $\gamma\upsilon\nu\alpha\iota\kappa\omega\nu$ 으로 읽고 있다)을 보여준다.

또한 "아이들과 여인들"이란 원래의 문맥 일반적이지 못해서 "여인들과 아이들"로 변경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상반되는 견해에 직면해서 위윈티의 대다수는  $\pi\alpha\iota\delta\acute{\iota}\omega\nu$  και  $\gamma\upsilon\nu\alpha\iota\kappa\omega\nu$ 이란 독법에도 동등이 가지만  $\gamma\upsilon\nu\alpha\iota\kappa\omega\nu$  και  $\pi\alpha\iota\delta\acute{\iota}\omega\nu$ 이란 독법이 2개의 조급은 낫다고 여겼다.

15: 39  $\mu\alpha\gamma\alpha\delta\acute{\alpha}\nu$  {C} 비록 증거는 거의  $\mu\alpha\gamma\alpha\delta\acute{\alpha}\nu$ 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소나 또는 이런 지명이 실례를 갖는 것은 확실치 않다. 막자: 10에 있는 평행본문에는



하

09/12/92

를 입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바로 앞절에  $\epsilon\lambda\acute{\alpha}\beta\alpha\mu\epsilon\nu$ 이 있  
 는 점에서 필경사들이 마가의 평행 본문 (막 8: 14) 에도  $\epsilon\chi\epsilon\tau\epsilon$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psilon\chi\epsilon\tau\epsilon$ 를  $\epsilon\lambda\acute{\alpha}\beta\epsilon\tau\epsilon$ 로 교체시켰을 것이  
 다.

16:12  $\tau\omega\nu \acute{\alpha}\rho\tau\omega\nu$  {D} 6절과 11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때, 12절의  $\delta\upsilon\mu\eta\varsigma$  뒤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 하나  
 하거나 아니면 둘 모두를 반복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비  
 록 한정시켜주는 소유격이 없는 D,  $\Theta$ ,  $f^{13}$ ,  $a^1$  등의 독법(  
 10 "그 제야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누룩을 준식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준식하라는 것임을  
 깨달았다")이 원문이며 이 외에 다른 독법들은 확대시킨 것  
 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경사들이  $\tau\omega\nu \acute{\alpha}\rho\tau\omega\nu$  이나  $\tau\omicron\upsilon\upsilon$   
 $\acute{\alpha}\rho\tau\omicron\upsilon$ 를 의미상 중복되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 삭제시켰다는  
 15 입장도 가능하다. 사본 작업시 가능성들을 고려하면서 위원은  
 $\delta^c$ , B, L, 292 등과 여러 개의 듣기 변역본들에 의해 입증되  
 고 있는 독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16:13  $\tau\acute{\iota}\nu\alpha \lambda\acute{\epsilon}\gamma\omicron\upsilon\sigma\iota\nu \omicron\iota \acute{\alpha}\nu\theta\rho\omega\pi\omicron\iota \epsilon\acute{\iota}\nu\alpha\iota$   
 {B}  $\mu\epsilon$ 를 갖고 있는 증거 자료들에서 그 위치의 다양  
 20 한과 평행 본문에서 이 단어가 확고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래 이 단어가 마태의 본문에는 없었는 것을 가리킨다.

16:21  $\omicron \text{ } \text{I}\eta\sigma\omicron\upsilon\varsigma$  {C} 예수가 메시아이신에 대  
 한 베드로의 선언에 대한 앞이 있는 설명 때문에  $\text{I}\eta\sigma\omicron\upsilon\varsigma$

091292

5 10 15 20 25 30  
 χριστός 라고 쓸 수있어 복음서 기자인가 아니면 후대의 필  
 경사들인가? 복음서들에서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만 주절이 드물

게 사용되었다는 점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 < 1:1  
 > 1:18) 과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 < 1:1 > 과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 < 1:19; 19:3 > 에서만 언급되어 있다) 과 특히 없애 있

는 문장을 볼 때, 위원회는 통상적인 ὁ Ἰησοῦς 를 선택했  
 다. 여러 사본들에서 이 이름이 없는 것은 필경사의 부주의 때문  
 때문인 것 같다 (N<sup>a</sup> 의 경우 필경사는 ΧC 를 제거시키면서  
 마찬가지로 우연하게 IC 를 제거시켰다).

10 11:10 μαθηταί {C} 없애 언급한 αὐτόν 때  
 문에 αὐτοῦ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원회는 필경사  
 들이 οἱ μαθηταί 에 자연스럽기 따라다니는 단어를 여겨서  
 이 단어를 첨가시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15 11:15 πᾶσχει {C} 독방 κοκκῶς ἔχει 가  
 좀더 관용적인 희랍어 표현이며 κοκκῶς πᾶσχει 는 중복된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자 대신에 전자로 교체해서 사용한 것  
 같다.

20 11:20 ὀλιγοπιστίαν {B} 마태 기자가 신약  
 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희박한 단어인  
 ὀλιγοπιστίαν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ὀλιγόπιστος 가 네번  
 사용되었다) 사용했으며 19절에 ἄπιστος 가 있다는 점에서  
 필경사가 약간 더 자주 사용된 단어 ἄπιστία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11회 사용되었다) 를 대체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기초 연구  
 5  
 10

10

15

20

위원

네번



한도 091292 32\*23-736

10 5 10 15 20 25 30  
 "그러므로 타인으로서 그들에게 주이라"로 읽으며, 타르에니아  
 본문에는 "자라 그라그 존한 너희는 타인들 가운데 한 사람  
 으로서 주이라"로 읽는다.

5  
 A: 7 οὐκὶ τῷ ἀνθρώπῳ {C} 필립스가 우연  
 히 지나쳤을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ἐκεῖν(을) 생각해야 할 이  
 유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문맥상 그러한 지시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립스의 앞이나 ἀνθρώπῳ 뒤에 이  
 단어를 첨가시킨 것 같다.

10  
 A: 11 절을 인정하지 않음 {B} ἤθευ γὰρ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ἵστησθαι καὶ) πάντα  
 τὰ ἀκατάλας란 구절은 여러 본문 계열들(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전(前) 가이사라 본문 계열, 에집트 본문 계열,  
 안디옥 본문 계열)의 중대적 대표적인 초기 증거 자료들에 배  
 재되었으며, 필립스들에 의해 눅 19:10에서 빌려 온 구절로서 위

15  
 조된 것만이 분명하다. 이 구절을 삽입시킨 이유는 10절과 12  
 -14절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20  
 A: 14 ἱμῶν {C} "너희 아버지"와 "나의 아  
 버지"란 독법 중에서 선정하자란 매우 어렵다. "나의 아버지  
 "가 강력하게 입증되기는 하지만 10절에 있는 τοῦ πατρός  
 μου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35절과도 비교해 보라). ἱμῶν  
 이란 독법(D\*와 소수의 다른 증거 자료들)은 ἱμῶν에 대  
 한 itacism(모음들 간의 유사한 발음 때문에 생기는 혼동)  
 일 것이다.

한글

091292

18:15

ἀμαρτήσῃ [ εἰς σέ ] { C }

εἰς σέ

관 구절은 2구절에 있는 εἰς ἐπέ 관 용례를 보고 필경사들이 원문에 삽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나(이 구절이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임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니면 무언하게(혹기 회람이에서 η, η, εἰ 등의 발음은 유사했었다) 이 단어들이 생략된 것으로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들을 균형있게 제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이 단어들을 괄호로 묶어 두었다.

18:21

ὁ Πέτρος εἶπεν αὐτῷ { C }

필경사

가 αὐτῶν을 εἶπεν 뒤에서 εἶπεν과 마찬가지로 προσηθῶν과 함께 취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시킨 이유는 찾을 수 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옮겨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소수의 증거 자문들만이 αὐτῶ가 없는 것은 필경사가 이 단어를 못보고 빠뜨렸기 때문이다.

18:26

λέγων { B }

κύριε는 29절에 말하시키기

위해 생략시켰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표현을 영적인 해석에 적용시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삽입시켰다는 설명이 더 그럴 듯하다. B, D, H, 100, vg, syr<sup>cs</sup>, arm, geo, al 등은 짧은 문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한 무리의 중요한 증거 자문이다.

18:29

αὐτοῦ 비록 (C, E, F, H, K, M, S, U, V, T, Δ, Π, 대부분의 소문자 A본들 등 Textus Receptus

에서 생략) εἰς τοὺς πόδας αὐτοῦ 관 구절은 필경사가 사본 간입시에 못보고 αὐτοῦ에서 αὐτοῦ로 넘어갔기

한글

32\*23=736

091292

때문에 우연히 칼락리일 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위월티는 짧은 본문 (A, B, C\*, D, G, L, Θ, I, 71, 124, 100, 892, 1396, 1424, 1513, 1519, 1552, 대부분 Old Latin, Vg, syr<sup>lss, pal</sup>, cop<sup>sa, bo</sup>, eth, geo) 을 원문이라고 결정했고, πεςων 을 설명해 주기 위해 필경사들에 의해 소개된 자연스러운 확대문으로 간주했다.

18:34 τὸ ὀφειλόμενον {C} 후기 증거 자료들을 따르고 있는 Textus Receptus 는 τὸ ὀφειλόμενον αὐτῶν 을 첨가시켰다.

짧은 증본은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서방 본문 계열, 전(前) 가이사라 계열 등의 대표적인 증거 자료들에 의해 적절하게 입증되고 있다.

18:35 ὑμῶν 후기 증거 자료들을 따르고 있는 Textus Receptus 가 이문장 끝에 첨가시킨 τὰ παραπλήμματα αὐτῶν 이란 어귀는 마태도 6:14에서 인용한 자연스러운 확대문이다.

위월티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서방 본문 계열, 가이사라 본문 계열 등의 대표적인 중요한 본문(A, B, D, L, Θ, I, 22\*, 100, 892, 1552, itab, cod, est, fi, 8, ri, Vg, syr<sup>cs</sup>, cop<sup>sa, bo</sup>, geo, eth, Speculum) 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짧은 증본을 선택했다.

19:3 Φαρισαιοι {C} 위월티는 다행하긴도 약할한 증거 자료들이 관사 없는 표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했다. 필경사들이 (이런 사본들이는 막 10:2에 있는 παροι

행 19

09/12/92

32 \* 23 = 736

5 10 15 20 25 30  
 본문에 ~~서~~도 ~~있~~었던 것 처럼) 정관사를 첨가시키는 것이 ~~당연~~하  
 5 10 15 20 25 30  
 옳다.

19:3  $\epsilon\lambda\epsilon\gamma\epsilon\tau\iota\nu$   $\alpha\nu\theta\rho\acute{\omega}\pi\omega$  {C} 만일  $\alpha\nu\theta\rho\acute{\omega}\pi\omega$

관 단어가 원문이 없었다면 필경사들이 이 단어를 첨가시켰을  
 5 10 15 20 25 30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알렉산드리아적  
 인 특징을 가진 증거 자료들이 짧은 본문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에서 볼 때, 위원회는 ~~이 단어를~~ ~~첨가~~ 문체를 더욱 간결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삭제시켰다고 보는 것이 어느  
 10 15 20 25 30  
 정도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lpha\nu\theta\rho\acute{\omega}\pi\omega$ 와 함께 쓰인 특별

은 마가의 평행본문(10:2)에 등화된 것이 분명하다.

19:4  $\kappa\tau\acute{\iota}\sigma\alpha\varsigma$  {B} 필경사들이 창 1:2의 ~~사~~

용된 히브리어 ("창은 하였다"란 의미를 지닌  $\text{סִגַּר}$ )에 맞추  
 5 10 15 20 25 30  
 기 위해서  $\pi\omicron\iota\eta\sigma\alpha\varsigma$ 를 변경시켰다고 보다는 거꾸로 (여러  
 우수한 증거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kappa\tau\acute{\iota}\sigma\alpha\varsigma$  관 단어를

15 20 25 30  
 (직접적인 문맥에서 인용된) 창 1:2의 20인역 본문에 일치  
 시키기 위해서  $\pi\omicron\iota\eta\sigma\alpha\varsigma$ 로 변경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욱 간  
 편하다.

19:7  $\alpha\pi\omicron\lambda\upsilon\sigma\alpha\iota$  [ $\alpha\upsilon\tau\eta\acute{\nu}$ ] {C}  $\alpha\upsilon\tau\eta\acute{\nu}$  이관

20 25 30  
 단어가 간결한 동형에 (~~την~~  $\mu\upsilon\chi\alpha\iota\kappa\alpha$  처럼) 첨가된 것이  
 지 아니면 막 10:4에 가까운 평행구절에 등화시키기 위해서  
 삭제된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비록 증거도 마친 자들로  
 거의 균형있게 상반된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기를 결정했다.

번호

091292

32\*23=736

19:9

μη̄ ἐπὶ πορνείᾳ καὶ φαρμίῃ ἄλλῃ

{C} 이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마태의 설명에  
 는 "에이 조항"이 두가지 형태를 나타낸다: **παρεκτός λόγου**  
**πορνείας** ("음행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와 **μη̄ ἐπὶ**  
**πορνείᾳ** ("음행에 관한 것이 아니면"). 앞의 제시한 독법  
 을 지닌 (B, D, f<sup>1</sup>, f<sup>13</sup>, 33 등을 포함하여) 증거 자료들은  
 확고한 본문인 5:32에 등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로 **πορεύσθαι αὐτήν μοιχευθῆναι** (<2녀가 재혼할 때>  
 "그녀를 간음하게 한다")란 구절은 확고한 본문인 5:32에  
 서 (B, C\*, f<sup>1</sup>을 포함하여) 여러 증거 자료들을 들어왔다.  
 1574의 짧은 독법인 **καὶ φαρμίῃ ἄλλῃ**은 이미 널리 알  
 려진 본문인 막 10:11에 맞춘 것이다.

19:9

μοιχεύεται {C} (K, W, Δ, Θ, Π, f<sup>13</sup> 등을 포함하여)

여러 증거 자료들은 **μοιχεύεται** 뒤에 **καὶ**  
**ὁ ἀπολελυμένην φαρμίαν** (또는 **φαρμίγας**) **μοιχεύεται**  
 ("그리고 이혼한 여자다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관 구절을 첨가시켰다. N, D, L, 1241, al 등에서 이 구절  
 이 탈락된 것은 유사문의 (類似文尾: Homoeoteleuton - **μοιχεύεται**  
 ... **μοιχεύεται**) 때문에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B, C\*, f<sup>1</sup>, al 등이 **μοιχεύεται**를 (결합된 절들의  
 끝부분에서) 단지 한번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본문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인 5:32의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했던 필경사들에 의해 탈락된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글

09/12/92

19:10  $\mu\lambda\theta\eta\tau\alpha\iota$  [ $\alpha\upsilon\tau\omega\upsilon$ ] {C} 짧은 특법을

지지하는  $\backslash, B, \Theta, it^e, cop^{sams}$  등의 배합이 주목할 만 하지만

위원회는  $\mu\lambda\theta\eta\tau\alpha\iota$  앞에  $\alpha\upsilon\tau\omega\upsilon$ 는 필명사들에 의해 삭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괄호로 묶어서 이 단어를

제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19:11  $\tau\omicron\nu\nu\ \lambda\omicron\gamma\omicron\nu$  [ $\tau\omicron\upsilon\tau\omicron\nu$ ] {C} 한편으로

지시 대명사를 첨가시킴으로 본문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

필명사의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B, f, 여러 큰기 번역본

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짧은 특법이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tau\omicron\upsilon\tau\omicron\nu$ 이 제자들이 의해

주된 말뜻(11절)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에 대해

서 제시한 해설을 가리키는 것인지 문맥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필명사들이 이 단어를 생략시켰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

들을 균형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기로 결정했다.  $\Theta$ 의 특법은 분명히 우수적인 것이다.

19:16  $\delta\iota\delta\acute{\alpha}\sigma\kappa\alpha\lambda\epsilon$  {B} 알렉산드리아 본문과

서방 본문들에서 대립가 되는 큰기의 좋은 본문들에는 없는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epsilon}$ 라는 단어는 필명사들이 마가(10:19)와 누가(18:18)

)의 평행본문에서 인용한 것이 분명하다(아래에 인용된 주석

을 참조하라).

19:17  $\tau\acute{\iota}\ \mu\epsilon\ \acute{\epsilon}\rho\omega\tau\acute{\alpha}\varsigma\ \pi\epsilon\rho\acute{\iota}\ \tau\omicron\upsilon\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omega}\upsilon\ ;$

$\acute{\epsilon}\iota\varsigma\ \acute{\epsilon}\sigma\tau\iota\nu\ \acute{\omicron}\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omega}\varsigma$  {B} 16절에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epsilon}$ 를 생

략시킨 많은 증거 자료들( $\Theta, \Gamma, \alpha$  등 제외하고)은 마태

한글

09/292

32\*23=736

이것이 있는 구절

의 명백한 표현 대신 특별 본문들  $\tau\acute{\iota}\ \mu\epsilon\ \lambda\acute{o}\gamma\epsilon\iota\varsigma\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omicron}\nu$   
;  $\text{o}\upsilon\delta\epsilon\iota\varsigma\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omicron}\varsigma\ \epsilon\iota\ \mu\eta\ \epsilon\iota\varsigma\ \acute{\omicron}\ \theta\epsilon\acute{\omicron}\varsigma$  ("너희는

대 나를 선택하고 하느냐? 아무도 선택지 않되 오직 하나  
님 할 분 분이냐") 10:18; 눅18:19)로 대체시킴으로

5 결론 변경시켰다. 만일 변경된 특별이 마태의 원문이라면 필  
경사들이 그 특별을 더욱 모호한 특별으로 변경시켜야 했던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필경사들이 공관본문에 있는 특별 본문에  
동화(同化)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10 19:22  $\tau\acute{\omicron}\nu\ \lambda\acute{o}\gamma\omicron\nu$  { } 다른 특별들이 생기게  
될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특별은  $\tau\acute{\omicron}\nu\ \lambda\acute{o}\gamma\omicron\nu$ 다

다. 이 특별은 다양한 본문 계열들의 대응적인 본문들에 의  
해 입증된다. 본문에 명백성을 기하고자 하는 필경사들의 일반적  
인 경향에 따라서 여러 증거 자료들은  $\tau\acute{\omicron}\upsilon\tau\omicron\nu$ 을 첨가시켰다.  
소수의 다른 증거 자료들은 전혀 표현이 활약적이 있다. 이것

15 은 사본 제작 당시 우연히 발생했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본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삭  
제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19:24  $\kappa\acute{\alpha}\mu\eta\tau\omicron\nu$  59, 1183, arm., geo 등을 포함하여  
20 여러 부수적인 여러 증거 자료들은  $\kappa\acute{\alpha}\mu\eta\tau\omicron\nu$  대신에  $\kappa\acute{\alpha}\mu\eta\tau\omicron\nu$   
(꽃은 빛줄 또는 "빛"줄)으로 되어 있다 (눅18:25의 주석

을 참조하라).

19:25  $\mu\alpha\theta\eta\tau\acute{\alpha}\iota$  { B } 인칭 대명사를 첨가시켰던  
후기 본문 계열들의 경향과 특징은 23절에 있는  $\tau\omicron\iota\varsigma\ \mu\alpha\theta\eta\tau\acute{\alpha}\iota\varsigma$

하

031492

32 \* 23 = 736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와 중복된 예도 볼 수 있고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19: 29  $\pi\alpha\tau\acute{\epsilon}\rho\alpha$   $\eta$   $\mu\eta\tau\acute{\epsilon}\rho\alpha$  {C} 많은 증거 자  
 료들에서  $\gamma\upsilon\nu\alpha\acute{\iota}\kappa\alpha$ 가 있는 것은 누가의 평행 본문 (눅 18: 29)에  
 따라 필경사가 동화시켰기 때문인 것 같다. 다른 증거 자료들  
 5 이  $\pi\alpha\tau\acute{\epsilon}\rho\alpha$   $\eta$   $\mu\eta\tau\acute{\epsilon}\rho\alpha$ 를  $\gamma\upsilon\nu\epsilon\acute{\iota}\varsigma$ 로 교체시킨 것은 그리할  
 평행본문을 갖고 있던 자료에 영향을 받았거나 압도적으로 대  
 제시했기 때문이다. D 사본과 여러 Old Latin의  $\pi\alpha\tau\acute{\epsilon}\rho\alpha$   
 $\eta$ 가 활략된 것은 유사문미 (類似文尾: Homoeoteleuton) 때문  
 것 같다.

19: 29  $\acute{\epsilon}\kappa\alpha\tau\omicron\upsilon\tau\alpha\pi\lambda\alpha\sigma\acute{\iota}\omicron\nu\alpha$  {B} 여러 독립본들이  
 평행본문들 안에 반영되어 있다: 마가 본문 (10: 30)은  $\acute{\epsilon}\kappa\alpha\tau\omicron\upsilon\tau\alpha\pi\lambda\alpha\sigma\acute{\iota}\omicron\nu\alpha$   
 10  $\pi\lambda\alpha\sigma\acute{\iota}\omicron\nu\alpha$  ("백 배")로 읽고 있으며; 누가 본문 (18: 30)에  
 대한 대부분의 필사본들은  $\pi\omicron\lambda\lambda\alpha\pi\lambda\alpha\sigma\acute{\iota}\omicron\nu\alpha$  ("여러 배")로  
 읽고 있으며; 누가의 서방 본문들 (D, Old Latin, syr<sup>h</sup> m)은  
 15  $\acute{\epsilon}\pi\tau\alpha\pi\lambda\alpha\sigma\acute{\iota}\omicron\nu\alpha$ 로 읽는다. 위원회는 마가에 대한 아래의  
 의결도를 고려하고 또한 의결 증거가 압도적으로 입증하고 있  
 다고 판단되는  $\acute{\epsilon}\kappa\alpha\tau\omicron\upsilon\tau\alpha\pi\lambda\alpha\sigma\acute{\iota}\omicron\nu\alpha$ 를 선택하기로 했다.

20: 5 [  $\eta$  ] (1) {C} 15절 첫부분에  $\eta$ 가 있  
 는 자료와 없는 자료에 대한 의결 증거는 알렉산드리아의 대  
 20 돌출된 증거 자료들 (B와  $\delta$ ), 서방 본문들의 대돌출된 증거  
 자료들 (D와 Old Latin), 가이사랴 본문의 대돌출된 증거  
 자료들 ( $\Theta$ 과  $f^1, f^3$ ) 내에서 상반된 입장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사본 학업적인 면에서 볼 때 필경사들이 이 관어를 삽입



한글

091492

인 변을 고려하여 수권된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소문자 사본들은 <sup>4분 각역사이</sup> ~~각역사이~~ 필경사들이 못보고 지나왔기

때문에 δ 'Ιησοῦς 를 바뜨렸다 (ΟΙΤΕΙC).

20: 17 τοὺς δώδεκα [μαθητάς] {C} 필

경사들이 원시적인 풀란인 οἱ δώδεκα (Tischendorf의 in loc. 에 있는 각주와 26: 20을 참조하라) 에 μαθηταί란 단

어를 첨가시켰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위첨하의 대다수는 이 단어가 있는 마태의 본문은 <sup>본래</sup> 마가의 본문 (10: 32)이나 누가의 본문 (18: 31) 에 등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가지 가능성은

즉 제시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었다.

여러 소문자 사본들과 번역 본문에 있는 αὐτοῦ란 특별한

부수적으로 확대된 본문만에 틀림없다.

20: 17 καὶ ἐν τῇ ὁδοῦ {B} ἐν τῇ ὁδοῦ

καὶ를 입증하고 있는 외적 증거는 본문을 지지하고 있는 외

적 증거보다 증거력이 약한 것 같다. 특히기 본문에 제시된 주절을 전치사구를 바꾼것은 의미를 좀더 낮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위의 것들보다 더 짧은 특별한 필경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면 분명하다.

20: 22 πίνευ C, E, F, G, H, K, M, U, V, W,

X, Γ, Δ, Π, Σ, Φ, 대부분의 소문자 사본들을 포함하여 많은

문 증거 자료들에는 πίνευ 외에 τὸ βάπτισμα ὁ

ἐν τῷ βάπτισματι βαπτισθῆναι가 전가되어 있다. 이 전

술은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서방 본문 계열, 가이사랴 본문



한글

091492

5 10 15 20 25 30  
 τὸν ἥττων τὸπον καὶ ἐπέλθῃ σου ἥττων, ἔρεῖ  
 σοὶ ὁ δειπνοκλήτωρ, Σύννοξε ἔτι ἄνω, καὶ  
 ἔσται σοὶ τοῦτο χρήσιμον (그러나 ~~너희가~~ 낮은 자는

5 (예) 더 키작게 를 구하고 더 높은 자의 낮은 자를 구하라.  
 6 너희가 잔치의 평판을 받아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7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8 되면 주인이 와서 너에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오' 하지  
 9 않도록 말이다. 만일 그러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  
 10 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너보다  
 11 못한 사람이 들어오면 주인이 너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  
 12 오시오' 라고 말하게 되리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니  
 13 라' ). 이 삼일 구절 들은 눅 14: 8-10을 확대시킨 그러나 열  
 14 등한 변역문으로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전승의 한 단편이다.

20 : 30 Ἐλέησον ἡμᾶς, [κύριε,] υἱὸς Δαυὶδ  
 15 { D } 다른 곳에 기록 되어 있던 유사한 구절들에 명칭을  
 받은 필경사들이 많은 이문(異文) 들을 만들어냈다. 막 10: 41 라  
 16 눅 18: 38 에 있는 떠돌이들이 모두 Ἰησοῦ 를 포커했고 있기  
 17 때문에 이 단어를 포커했고 있는 아래쪽인 득법들은 부수적인  
 18 것들로 볼 수 있다. 비록 가장 짧은 득법 (Ἐλέησον ἡμᾶς,  
 20 υἱὸς Δαυὶδ) 이 원문이며 그밖에 다른 모든 득법들은 필경  
 사들이 확대시킨 본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아래가 앞서  
 서 언급 했던 승경들을 치유한 기사에 명칭을 받은 필경사들이  
 21 정확한 떠돌이 구절인 9: 29 에 등락시켜서 만들어 낸 것으로 여

한글

09/492

거진다. 또한  $\nu\iota\epsilon\lambda$ 를 같이 쓴 독법은 그 주격(主格)에 대한  
 더욱 셈어적(Semitic)인 용법(참조, Blass-Debrunner-F  
 urk, § 149 <3>)이라기보다는 더욱 세련된 회답 문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여러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유헤의 대다수  
 는 K, W, Γ, Δ, α, al 등의 독법들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κύριε의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  
 기 위해서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었다.

20: 31 Ἐλέησον ἡμᾶς, κύριε 이순이 κύριε,

Ἐλέησον ἡμᾶς 로 되어 있는 독법은  $\lambda, \beta, \delta, \zeta, \theta,$   
 $f^{13}, 543, 592, 1010, 1293, it^{a,b,c,d,h,l,n,r}, vg, syr^{p,pal}, cop^{s,bo},$   
 $arm, geo^2$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반면에 Ἐλέησον ἡμᾶς,  
 κύριε란 이순은  $p^{asvid}, c, n, o, w, x, \Gamma, \Delta, \Pi, \Sigma, \Phi,$   
 대부분 소문자 사블들,  $it^{#2,6}, syr^h, geo^2$  등에 의해 입증된다(  
 15 κύριε는 118, 209, 100, 1675,  $vg^{ms}, syr^{pms}$  등에는 칼라리아  
 있다). 결국으로 약간 떨어지는 외적 증거가 앞에 제시한  
 것들 중에서 두번째 이순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유헤  
 의 대다수는 그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순  
 이 예전적이지 않으며(non-liturgical), 결국 사블 작양시  
 20 문더 익숙한 이순으로 변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21: 4 προφήτου 여러 증거 자료들( $M^{mg}, 42, it^{a,sh},$

$cop^{boms}, Hilary$ )은 προφήτου 앞이나 뒤에 Ζαχαρίου를  
 첨가시켰다. 다른 증거 자료들( $vg^{4mss}, cop^{bomss}, eth$ )은 “이

09/492

X

사야"를 앞에 두었다.

리: 12 ἱερόν {B} τοῦ θεοῦ 의 힘은 기록한

장수를 타당히 인정하는 것을 강권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혹대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평행 본문들 (막 11: 15과 눅 19: 45. 찬

5 로 요 2: 14) 에 τοῦ θεοῦ 가 빠져있다는 사실은 만일 팔경

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팔경들에게 마태복음 사본들에서  
이 단어를 삭제시키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복음서들 사본에 이 단어를 추가시키도록 유도했을 것이  
다. 비록 유대인들은 그러한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

10 태나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지 하나만 의미했기 때문  
이다), 긴 표현도 본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

도 이 단어가 생략 <sup>(필요는)</sup> 그러한 입장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ἱερόν 독법을 지지하는 강한 외적 증거는 내적으

로 관찰된 사행과 좋은 결함을 이루는 것 같다.

X

리: 29-31 οὐ θέλω, ὑπέρων δὲ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 ἑτέρω ... ἐγώ,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

... πρώτος {C}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본문적인  
변화가 매우 복잡하다 (리: 32의 주석을 참조하라). 만강하게

거부했지만 굳이 순종한 아들이 첫째를 언급되어 있느냐 아  
20 니면 둘째를 언급되어 있느냐 (29절)? 유대인들은 두 아들

중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대답하려 했는가  
중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무슨

단어 (πρώτος, 아니면 ἑτάτος, 아니면 ὑπέρων, 아니면

학번

091492

32\*23=736

δεύτερος) 를 사용했는가? 여기에는 세가지 주요한 본문 형태들이 있다.

(a)  $\dot{\sigma}$ , C\*, K, W,  $\Delta$ ,  $\Pi$ , it<sup>ca</sup>, vg, syr<sup>ca, f, h</sup>, al 등에 따르면 첫째아들은 "싫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회개한다. 둘째아들은 "가겠"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대답:  $\dot{\sigma}$  πρώτος.

(b) D, it<sup>a, b, d, e, ff<sup>2</sup>, h, i</sup>, syr<sup>s</sup>, al 등에 따르면 첫째아들은 "싫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회개한다. 둘째아들은 "가겠"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대답:  $\dot{\sigma}$  ἔσχατος.

(c) B,  $\Theta$ , f<sup>13</sup>, 700, syr<sup>pal</sup>, arm, geo, al 등에 따르면 첫째아들은 "가겠"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둘째아들은 "싫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회개한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대답:  $\dot{\sigma}$  ὑστερος (B), 또는  $\dot{\sigma}$  ἔσχατος

( $\Theta$ , f<sup>13</sup>, 700, arm), 또는  $\dot{\sigma}$  δεύτερος (4, 293), 또는  $\dot{\sigma}$  πρώτος (geo<sup>A</sup>).

세가지 본문 형태들 중에서 (b)가 가장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 (Lachmann, Merx, Wellhausen, Hirsch)은 이 본문 형태를 보강시킨 형태들로서 다른 두 형태가 생기게 되었다고 당연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b)의 본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b)의 본문 형태는 난해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말이 빠르다. 즉 "가겠"고 말해 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날

09/4/92

32\*23=736

5 10 15 20 25 30

로 순종하는 아들이란 말인가! Jerome은 당시에 이런 터무 없  
 불합리한 내용만을 갖고 있는 사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은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비유의 초점을 잃게  
 하기 위해서 신술롭게 터무니 없는 대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그 유대인들이 그 비유는 직접 자  
 신들을 향하여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간순하게 친  
 목을 지키고 있기 보다는 터무니 없는 대답이라도 했다는 가  
 정도 필연으로 본다. 이러한 설명은 역시로 갖다 댈 심리책이거  
 나 또는 지나치게 교묘한 문학적 증거들을 <sup>그</sup> 유대인들이나 마태  
 10 의 뜻으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득법 (b)의 기원  
 은 필명사가 사본 작업시에 실수를 범했거나 아니면 반(反)  
 바리새적 (anti-pharisaic) 편견 (즉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말  
 반 하고 행한)이 없는 자들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찬조 마3  
 : 3>, 이들을 '가갸다'고 말만 하고 가지 않았던 그 아들들  
 15 입증하는 언물들로 표현되었음에 틀림없다)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a) 형태와 (c) 형태 중에서 (a) 형태가 더욱 원  
 20 목 같다. (a)를 입증해주는 증거 자료들이 (c)를 지지하  
 는 자료들보다 약간 더 나을 뿐 아니라 (a)의 순서를 (b)  
 b)의 순서로 바꾸어 놓으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첫 아들이 순종했다면 둘째 아들을 부를 이유  
 가 없다는 것이 논의될 수 있으며, 또한 불순종하는 아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sup>또한</sup>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23절)로 이해하

09/492 32\*23=736

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은 이방인들이나 세리와 캄  
 기를 (31절)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  
 석적인 면에서 일치하려면 순종하는 아들은 시간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마지막에 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C)의  
 본문 형태가 열등하다는 점은 이 비유 끝부분에 있는 다양한  
 득법들에 의해 입증된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Handwritten symbol resembling a stylized 'H' or 'A'.

21:32 οὐδέ 21:29-31 ~~있음~~ 본문 변화가 보여  
 주는 혼란은 이 절의 마지막 구절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

οὐδέ (B, O, H, D, F, 13A, I, f<sup>13</sup>, 22, 33, 157, 543, 565,  
 700, A92, 1519, 15A2, 대부분의 Old Latin, vg, cop<sup>bo</sup>, eth  
 등에 의해 입증되는 득법) 대신에 다른 증거 자료들 (S, C,  
 L, W, X, Π, 2A, 11A, 209, 비잔틴 본문, cop<sup>sa</sup> 등을 포함  
 하여)은 οὐ로 읽는다. D와 syr<sup>s</sup>는 이 부경어가 없다. it<sup>ces,h</sup>  
 는 이 단어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다 (quod non credidistis).

Δ는 절 전체가 없다 (ὕμεις δε에서 이 절 끝까지). 아마  
 유사문이 (類似文尾: Homoeoteleuton) 때문으로 생각된다.

부경어가 없는 것은 아마 우발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절로써의 의미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를 믿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들이켜> 회개하였다")  
 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아주 <sup>정확</sup> 부결한 결론으로 여겨진다. 마  
 찬가지로 이 부경어가 마지막 등사가 있는 곳으로 옮겨진 문  
 장도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sup>이</sup> 후에 회개하였다. 왜냐하  
 면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똑똑하고 다양한 문

날

09/14/92

32\*23=736

기 증거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득법 οὐδέ는 이 말  
 씬의 위력 ( "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도 나중에 그를 믿  
 으려고 가책은차 느끼지 않았다 ) 을 보지 못한 필경사들에 의  
 해 οὐ로 변경된 것 같다.

21: 39 αὐτὸν ἐξέβαλον ἔξω τοῦ ἀμπελῶνος

καὶ ἀπέκτειναν { B } 사방 본문 ( D, H, it<sup>a,b,c,d,e,ff<sup>2</sup>,h,i</sup>, geo, Irenaeus, Lucifer, Juvenius ) 바가에 있는 순서에  
 등화된 것 같다. 마가에는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포도원에  
 서 쫓겨났다 ( 막 12: 8 ), 마태와 누가 ( 20: 15 ) 는 예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 요 19: 17, 20; 히 13: 12f ) 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망하기 전에 성밖으로 쫓겨나는 내용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다.

21: 44 [ Καὶ ... αὐτόν. ] { C } 쿨른에 여러

작자들은 이 절을 ( 눅 20: 18에서 ) 대부분 아래의 대부분의  
 필사본들 안으로 초기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단이들이 똑같지 않으며 이 절을 삽입시키기 위  
 한 좀더 적절한 장소는 42절 뒤일 것이다. 이 절이 빠진 이  
 유는 필경사가 αὐτῆς ( 43절 ) 에서 αὐτόν 사이를 못보고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이 본문에  
 추가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득법의 오래되었다는  
 사실과 본문 전승에서 이 득법의 중요성 때문에 위임되는 이  
 절을 이 중 괄호로 묶어서 본문에 두기로 결정했다.

22: 10 ὁ γάμος { B } ὁ νυμφῶν ( 여기서도 )

항목

09/453

32\*23=736

10 결론 사항<sup>99</sup>을 의미함)이란 득법은 “가득했다”라는 동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ὁ γάμος란 말이 대  
 신에 제시된 알렉산드리아적인 교정이라고 간주되었다.

22: 23 Σαδδουκαῖοι, λέγοντες {B} Σαδδουκαῖοι

5 의 골부분과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말이 뒤에 있던 정  
 관사가 탈락되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23의 필경사  
 들이 평행분문(막12:18; 눅10:29)에 등화시키기 위해 그 관  
 사를 첨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성이 크다. 여기서 분사  
 는 관사가 없을 경우 2) 사두개인들이 예수와 대화를 시작하

10 면서 그들의 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  
 로 관사가 있을 경우 3)이 구절이 사두개인들의 신조(...라고  
 말하는 4) 사두개인들이)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가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이러한 종류의 설명을 제시한 유일한  
 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사 없는 득법을 선택하기로

15 했다.

22: 30 ἄγγελος {C} ἄγγελος에 대한 증거가 한

정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과 시방 본  
 문 계열 등의 대동적인 본문들에 포함되어 있다. (700)

20 Θεοῦ의 첨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원문이 이  
 관어가 있었다면 탈락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22: 32 ἔστιν [O] Θεός {C} 좀더 면밀하

게 관찰해 보면 후기 본문에서 두번째 Θεός가 삽입된 것이  
 다 (“왜냐하면 하나있는 주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항목 091592

32\*23 = 736

적당하게 설명할 길이 있다. 그리고 <sup>(2)</sup> 예수의 말씀에 대해 신성권을 부각시키거나 하는 필경사들의 경향이  $\Sigma$  사본에서  $\beta\alpha\rho\acute{\epsilon}\alpha$  앞에  $\mu\epsilon\gamma\acute{\alpha}\lambda\alpha$  를 <sup>V</sup> 두드러 <sup>V</sup> 했고 <sup>V</sup> 눅 11: 46에 따라서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인  $\kappa\alpha\iota\ \delta\upsilon\sigma\beta\acute{\alpha}\sigma\tau\alpha\kappa\tau\alpha$  를  $\beta\alpha\rho\acute{\epsilon}\alpha$  뒤

에 삽입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rho\alpha\beta\beta\acute{\iota}$  확대된 표현인  $\rho\alpha\beta\beta\acute{\iota}, \rho\alpha\beta\beta\acute{\iota}$  (D, E, F, G, H, K, M, S, U, V, W, Y,  $\Gamma, \Omega, \alpha\lambda$ )란 형태는 좀더 무게가 있고 의례적인 표현이며 아마 필경사들에 의해 부각된 표현일 것이다. 위원리는 그래서 같은 특별을 선택했다.

대안하면 이 특별은  $\Sigma, B, L, \Delta, \Theta, \Sigma$ 이며,  $i3a, f, it, vg, syr^p, cop^{sabo}, arm, eth, geo^{3,4}, arab, pers$  등에 의해 <sup>V</sup>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rho\alpha\beta\beta\acute{\iota}$  (1) {C} D,  $\Theta$ , 여러 Latin 증거 자료들, 시리아 증거자료들 등에 수록된  $\rho\alpha\beta\beta\acute{\iota}$  은 <sup>V</sup> 셈어 (Semitic)적인 표현으로 <sup>V</sup> 문리적인 여격 (dative)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위원리의 매다수 가 다를 모든 증거 자료들에 의해 훨씬 잘 입증되고 있는  $\rho\alpha\beta\beta\acute{\iota}$ 보다 그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Theta\upsilon\alpha\iota\ \delta\epsilon\ \rho\alpha\beta\beta\acute{\iota}\ \dots\ \epsilon\iota\sigma\epsilon\lambda\theta\epsilon\iota\nu.$  {B} 14절은 <sup>V</sup> 막 12: 40이나 <sup>V</sup> 눅 20: 47에 있는 <sup>V</sup> 행행 분 문 에서 가져 라 산 입 시킨 절 이 라는 사실은 <sup>V</sup> 말 락 산 드 리 아 분 문 계 열, 서 방 분 문 계 열, 가 이 사 라 분 문 계 열 등 권 위 가 있 으 며 함 월 한 문 분 들 에 는 이 절 이 없 다는 권 과 (b) 이 절 을 갖 고 있 는

날 09/1692

32\*23 = 736

증거 자료들은 이 절을 (Textus Receptus 취림) 13절 뒤  
 나 다니면 13절 앞에 둬으로써 이 절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  
 난다.

X

23:19 τυφλοί {C} μωρί και 관 안이 들어갈 필경  
 사들에 의해 11절에 따라 삽입시킨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만일 이 판이들이 원문이 라면 이것들이 탈락되어야 했던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X

23:26 του ποτηρίου ... το εκτος αυτου {D  
 } 의적 증거는 긴 독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 동시에 B\*, f<sup>3</sup>, 라, al 등에 (αυτων 대신에) αυτου가

X

있다는 사실은 본래 원문 안에 και της ποτηριδος 가 없  
 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하게 살피볼 때 필  
 경사가 25절에 따라 삽입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X

23:38 υμων ερημος {C} 필경사들이 령 22:  
 5에 있는 본문에 이 인용문을 일치시키기 위해 ερημος 를  
 첨가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적 증  
 거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살피볼 때 위원회의 때

X

다수는 ερημος 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어떤 증거 자료들에 이 판이거 없는 이유는 αφιεται 뒤에  
 있는 이 판이는 솔데 없이 중복된 단어라고 생각했던 필경사  
 들에 의해서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X

24:6 γενεσθαι {B} 가장 짧은 독법이 특되고  
 다양한 동기 증거 자료들에 의해 입증된다. 필경사들이 원문에

날짜

09/16/92

32\*23 = 736

고딕체

16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 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 또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첨가시켜서 확대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만  
 일 이런 표현들이 원문이 있었다면 이 표현들이 탈락된 현상  
 5 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해 줄 방도가 없다.

24: 31  $\sigma\alpha\lambda\pi\iota\gamma\gamma\omicron\varsigma$  { B } 필경사들이 불필요한 것  
 으로 여겨서  $\phi\omega\nu\eta\varsigma$  를 삭제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E처럼  
 필경사들 습관적인 짓을 고려해 볼 때 원문의 뜻을 더욱 분  
 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phi\omega\nu\eta\varsigma$  나  $\kappa\alpha\iota$   $\phi\omega\nu\eta\varsigma$  (출 19: 16 에  
 10 있는 하나님께 대한 설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일) 를 첨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욱 가능성이 크다. 또한  
 $\phi\omega\nu\eta$   $\mu\epsilon\gamma\acute{\alpha}\lambda\eta$ 란 표현은 신약성서에서 여러번 나타나지만  
 $\sigma\alpha\lambda\pi\iota\gamma\gamma\omicron\varsigma$   $\mu\epsilon\gamma\acute{\alpha}\lambda\eta$ 란 표현은 아직 여기에 한 번 밖에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15 24: 36  $\omicron\upsilon\delta\acute{\epsilon}$   $\bar{\omicron}$   $\nu\iota\acute{\omicron}\varsigma$  { C } "아들도 모른다"  
 는 표현은 특히 비잔틴 본문들을 포함하여 마태 23  
 들의 대부분에 빠져 있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서  
 방 본문 계열, 가이사라 본문 계열 등의 본문들 중에서도  
 20 대폭적인 본문들은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구절이  
 막 B: 32에 등화시키기 위해 첨가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  
 구절이 지니고 있는 교리적인 난해함 때문에 이 판이들을 삭  
 제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욱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mu\acute{\omicron}\nu\omicron\varsigma$ 의  
 존재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의 역할 (원문에서  $\omicron\upsilon\delta\acute{\epsilon}$

항목 091692

32\*23 = 736

5 10 15 20 25 30  
 ... οὐδὲς 는 원죄자에 의한 삽입구를 볼 수 있다. 대부하면  
 εἰ μὴ ὁ πατήρ μόνος 는 οὐδεὶς οἶδεν 과 같  
 이올라기 때문이다) 은 이 구절이 원문임을 입증하고 있다.

25: 1 τοῦ νυμφίου {C} 서방 증거 자료들  
 5 과 가이사라 증거 자료들 등이 결함하여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는 καὶ τῆς νυμφῆς 신부(신부)란 단어들은 신앙의 신 그리스도자  
 신부가 되는 교회를 데려올 것이라는 당시의 널리 알려진  
 10 된 입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경사들이 그 비유의 논리에 그렇게 민감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 단어들을 생각시킨 필경사들은 결혼식이  
 약혼자의 집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관찰했을 것이며, 이 단어  
 15 를 첨가시킨 필경사들은 신앙이 신부를 결혼식이 거행될 그의  
 집 (또는 그의 부모의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을 관찰했  
 20

번제 제시할 관습이 근대 세계에서 더욱 일반적이기 때문에,  
 15 이 단어들은 신부를 언급하는 것이 이 비유에 대한 풍유적  
 (allegorical) 인 해석을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  
 20 던 필경사에게 타해 짐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지  
 25  
 2 신장은 다음에 언급된다.

25: 13 ἔρχεται C<sup>3</sup>, Γ, Π<sup>3</sup>, Φ, f<sup>13</sup>, 28, 157, 543, 700,  
 20 1241, syr<sup>pal</sup>mg 등에 있는 ἐν τῷ ὄντι τοῦ ἀνθρώπου  
 ἔρχεται란 절은 24: 44에 있는 유사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  
 25 던 필경사들이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현학적으로 첨  
 가한 것이다. 실제로 이 경구문은 이 구절이 없음을 때 더욱 강

항목 091692

32\*23=736

5                    10                    15                    20                    25                    30

조각이며 앞에서 24:36을 읽은 사관에게, 충분히 명쾌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 위위체는 짧은 분문을 선택하기를 했다.  
 이 분문은 P<sup>35</sup>, N, A, B, C\*, D, L, W, X, Y\*, Δ, Θ, Π\*,  
 Σ, Φ, 047, f<sup>1</sup>, 33, 565, 892, 1219, 1424\*, 1604, 245\*, it, vg,  
 syr<sup>sph, pal, txt</sup>, cop<sup>sa, bo</sup>, arm, eth 등에 의해 입증된다.

25: 15-16                    ἀπεδήμησεν. εὐθέως πορευθείς

{C} 분문을 채용한 특법을 지지하는 외적 증거가 양쪽  
 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특법은 εὐθέως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필경사들이 접속사가 생략된 것을 보완  
 시키기 위해 πορευθείς 앞이나 뒤에 δε를 삽입시킴으로  
 다른 특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다.

분문에 채용한 구절은 마태복음의 다른 분문 (εὐθέως나  
 εὐθὺς가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 속한 곳)에 있는 용법과도  
 일치하며 이 비유의 의미 (여기에는 주인이 곧 바로 떠난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곧 바로 일을 시작한다  
 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일치한다.

25: 19                    ἐκέρδησεν {B} 대응적인 이야기식 문체

에 완전함을 기하기 위해 필경사들이 ἐκέρδησεν 앞이나  
 뒤에 καὶ αὐτός란 구절을 덧붙였다. 이 단어들의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구절이 지닌 부수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25: 41                    τὸ ἠτολμασμένον {B} "나의 아버지



날짜

09/16/92

32\*23 = 736

f<sup>13</sup>, 124, 230, 348, 543, 718, 788, 826, 828, 983) 은 22:43-44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첨가시켰다: ὠφθη

δε αὐτῷ ἄγγελος ἀπ' (ἀπὸ τοῦ 543, 826, 983) οὐρανοῦ ἐνισχύων αὐτὸν καὶ γενόμενος ἐν ἁ

γῆνι ἐκτενέστερον προσήγγετο· ἐγένετο δε (124에 대한 생각됨) ὁ ἰσχυρὸς αὐτοῦ ὡσεὶ θρόμβοι

αἵματος καταβαίνοντες ἐπὶ τὴν γῆν. οἰκοδομησαὶ {C} αὐτόν 이란 단어는 이 단어가 중복되는 것이라고 여긴 필경사들에 의해 삭제되었

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필경사들이 의미를 더욱 명

확하게 하기 위해서 (참조, 토 2:19) 이 대명사를 첨가시켰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단어의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대명사의 원문성에 대해 의심

할 수 있다. 26:63 καὶ {C} 위원회의 손수는 필경사들이 ἀποκριθεὶς를 앞에 있는 절 (ὁ δε Ἰησοῦς ἐστῶτα) 라

말지 않다고 여겨서 삭제시켰다고 판단해서 긴 족법을 선택했다. 반면에 위원회의 대다수는 외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지지하

고 있는 짧은 족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26:71 οὗτος {B} καὶ οὗτος란 족법은 누가의

평행분문 (눅 22:59) 에 따라서: 분문에 소개된 것 같다. 짧은 족법을 지지하는 데에 알렉산드리아 분문, 서방 분문, 로마 분문 등의 분문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문들이 일치하고

일치하고

날

09/692

32\*23 = 736

5 10 15 20 25 30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의제 증거를 나타낸다.

2: 2 ΠΙΛΑΤΩ {C} 만일 ΠΟΝΤΙΩ란 단어가 원  
본에 있었다면 이 단어가 대 생략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반면에 복음서들에서 벨라드란 이름이 나오는 첫 구절에 필경  
5 사들이 이 단어를 삽입시켜 놓는 것을 차연스럽다. 이 두 이  
름은 또한 눅 3: 1; 행 4: 27; 딤후 6: 13에도 나타낸다. 속  
사도 교회 (post-apostolic church)에서 이 두 이름은 일반  
적이었었다 (참조, Ignatius; Trall. 9; Magn. 11; Smyr.  
1; Justin Martyr에 있는 많은 구절들). 호세푸스의 Antiquities,  
10 XVIII. ii에서 ΠΙΛΑΤΟΣ는 첫 언급에서 ΠΟΝΤΙΟΣ  
ΠΙΛΑΤΟΣ로 자주 나타난다.

2: 4 ἄθῶνον {B} 희랍어 구약성서에는 αἶμα  
ἄθῶνον ("순결한 피")가 15회 나타나고 αἶμα δίκαιον ("의로운 피")가 4회 나타나고 αἶμα ἀνάξιον ("무죄한  
15 피")가 4회 나타난다. 그래서 드문 표현인 αἶμα δίκαιον  
은 더욱 일반적인 표현인 αἶμα ἄθῶνον으로 변경되었을 것  
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δίκαιον은 마 23  
: 35에 따라서 필경사들이 제시한 것일 수 있다. 여하튼 필경  
증거는 여기서 ἄθῶνον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2: 5 εἰς τὸν ναόν {D} 특별 ἐν τῷ  
ναῷ는 유다가 성소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 같다. 이  
성소는 당시에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금지되  
었던 입구였다. 그러나 ναός란 단어는 좀더 완화된 의미로

날짜

09/6/92

32\*23 = 736

5 10 15 20 25 30  
 성소 구별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기를 했다.  $\epsilon\iota\varsigma$  τὸν νοῦν

이런 특별한 강한 감정과 물리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문

맥에 더욱 적합한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psilon\iota\varsigma$  타 결

핵심 본문은 알렉산드리아적으로 세련된 구절이라고 할 수도

5 있다. 이런 상층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위원회는 가장 불만족인

문수가 적은 결정은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거 자료

들에 의해 입증되는 본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 9 Ἰερεμίου 특별 Ἰερεμίου는 탁고한 것으로서

10  $\aleph$ , A, B, C, L, X, W, Γ, Δ, Θ, Π, 대부분 소문자

사본들, 대부분의 Old Latin, vg, syr<sup>h, t, p, l</sup>, cop<sup>sa, sb</sup>, goth, arm, eth, geo

15 등에 의해 입증된다. 그러나 마태 원저자에 의해 인용된 이 구절은 예레미아에서 발견되지 않고 스카랴 (11:13)

)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전 증거 자료들 ( $\Phi$ , 33, 157, 1577, it<sup>asb</sup>, vg<sup>ms</sup>, syr<sup>so, p, pal</sup>, cop<sup>bm, s</sup>, pers<sup>p</sup>, Diatessaron<sup>as, 1</sup>, mss<sup>acc. to Augustine</sup>)

15 )은 이 이름이 전체적으로 칼락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증거 자료들 (22, syr<sup>h, mg</sup>, arm<sup>mss</sup>)에는 Ζαχαρίου를 고쳐

시켰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이상한 것은 두 증거 자료들 (21, it<sup>1</sup>)은 "이사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 그 이유는 아마도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으로서 이사야는 신약성서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기 때문이다 (13

: 35에 있는  $\delta\iota\acute{\alpha}$ 에 대한 주석을 보라).

기: 10 ἔδωκεν {C} 마지막 글자 V가 뒤에 있

는 모음 때문에 본문에 들어오게 될 것인지 아니면  $\mu\omicron\upsilon\varsigma$ 의

날짜

09/6/92

32\*23 = 736

5 10 15 20 25 30  
 방향 때문에 삭제당한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다. 다양한 의견  
 증거의 증거력에 따라서 위원회의 대다수는 복수 형태를 취하  
 기로 결정했다.

29:16 [Ἰησοῦν] Βαραββᾶν {C}

29:17 [Ἰησοῦν τὸν] Βαραββᾶν {C}

가이사랴 제물의 여러 불문들 속에서 지금까지 보존된 독방은  
 오리겐 (Origen) 이 알고 있던 것이다. 오리겐은 불문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여러 사본들에서 바라바가 예수라고도 불렀었  
 다는 말은 없다. 그래서 아바 (생략된 형태자) 맞다".

(오리겐은 예수 바라바란 독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성서 전체를 보아도 우리는 어느 번역과  
 도 예수라고 <칭하지> 않았<sup>29</sup>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바라  
 바란 이름은 맞지 않다고 설명한다)

10세기경의 대문자 사본 (S) 과 약 20 개의 소문자 사본들  
 에는 다음과 같은 번역주가 있다. "내가 볼 때 많은 근대 사본  
 에서 나는 바라바도 마할까지로 '예수' 라고 불렀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빌라도의 질문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Τίνα θέλετε ἀπὸ τῶν δύο ἀπολύσω ὑμῖν,  
 Ἰησοῦν τὸν Βαραββᾶν ἢ Ἰησοῦν τὸν λεγόμενον

20 Χριστόν. 왜냐하면 그 강도의 아버지 쪽의 성은 '스승의  
 아들' 이란 의미를 지닌 '바라바' 가 불명하다. 사본들 번역에  
 안티오크 (Antioch) 의 주교 Anastasius (아마 6세기 말엽) 나  
 Chrysostom의 것으로 여겨지는 사본들 안에 있는 이 주석은



항목

091992

32\*23 = 736

5 10 15 20 25 30  
(해다) 인종 보아 예수의 결백함에 대한 빌라도 학언을 강조하  
기 위해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27: 28 ἔκδύσαντες αὐτόν {B} 즉 법 ἐνδύσαντες

5  
는 재적질할 때 알몸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려는 교정문  
을 보인다. 옷을 벗기던 (ἔκδύσαντες) 다시 입히는 연속  
적인 동행은 31절과 평행을 이룬다.

27: 29 ἐνέπιζον {B} 미완료 시제로 된 <sup>어</sup>만어는

10  
ἔτυπτον (30절) 에 일치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로  
있다. 그러나  $\Delta$ , B, D, L, 33, 892, al 등의 증거 자료들은  
위위력을 하여금 그 독법이 우수한 것임을 인정하게 했다.

27: 35 κληῖρον Textus Receptus 는 κληῖρον

15  
에 ἵνα πληρωθῆ τὸ ῥηθὲν ὑπὸ τοῦ προφήτου.  
Διμερίσαντο τὰ ἱμάτιά μου ἑαυτοῖς, καὶ  
ἐπὶ τὸν ἱματισμόν μου ἔβαλον κληῖρον (시

20  
22: 18) 을 첨가시켰다. 비록 이 구절이 <sup>앞에</sup> κληῖρον에서  
뒤에 있는 κληῖρον 으로 우선절에 떨어넘는 유사문의 (類似文  
尾: Homoeoteleuton)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위위력은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방 계열 등의 후기  
본문들 ( $\Delta$ , A, B, D, L, W, Γ, Π, 33, 71, 151, 565, 900,  
892<sup>c</sup>, it<sup>ss</sup>, vg<sup>ms</sup>, syr<sup>s, p, hmg, pal</sup>, eth, pers<sup>p</sup>) 에는 이 구절이 없다  
는 것과 필경사들이 마태의 일반적인 인용 공식에 등화된 τὸ

ῥηθὲν ὑπὸ (또는 δὲ) τοῦ προφήτου 란 구절과  
함께 19: 24에 있는 평행본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등을

항

09/19/92

32\*23 = 736

5 10 15 20 25 30  
인정하기로 했다.

29: 38 "하나는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란  
구절 뒤에 Old Latin 사본 Colbertinus (it<sup>c</sup>)는 예수와 한  
께 십자가에 못박혔던 두 강도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

5 nomine Zoatham과 nomine Camma. (막 15: 29과 눅 23: 32에  
대한 극색을 참조하라)

29: 40 [ΑΑΙ'] (3) {C} 한편으로 ΑΑΙ'는 뒤  
에 있는 단어의 첫음절과의 혼동 때문에 활략된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절을 주전절 (εἰ

10 ... Θεοῦ)로 취급한 필경사들에 의해 삽입된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회의 대다  
수는 이 단어를 괄호를 묶어서 본문에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29: 42 βασιλεύς {B}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15 다"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변경거림은 이해하지 못한 필경  
사들이 40절의 영향을 받아 εἰ'를 삽입시켰다. 만일 이 단어  
가 원문에 있었다면 이 단어가 생략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  
할 수 없다.

29: 43 βυσσάνω νῦν {C} <sup>비록</sup> αὐτόν은 증복되는  
20 것으로 여겨서 알렉산드리아 편집자측 삭제시켰다고 주장할 수  
도 있지만 위원회는 시 9: 9에 대한 10인역본 (LXX)의 영  
향을 받아서 <sup>의반역본</sup> 삽입시켜 놓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29: 46 ηλι ηλι λεμα σαβαχ θανι 리브리이

날짜

09/19/92

32\*23 = 736

5  
 > ϩ ( " 4의 하나님 " ) 을 표현하는 ϩ ( 또는 ϩει ) 대  
 신에, ϩ, B, 33, cop<sup>sa,bo</sup>, eth 등을 포함하여 여러 증거 자료  
 들의 본문은 아람어 (Aramaic) 로 > ϩϩ ( " 4의 하나님 " )  
 를 표현하는 막 15: 34 에 있는 특별 ϩϩ에 동화되었다. 아람어가 α  
 대신에 ω로 발음되는 이유는 히브리어 > ϩϩ의 명칭 때문  
 이다.

10  
 λεμα란 철자법 ( ϩ, B, 33, 700, 998, al ) 은 λημα ( A,  
 K, U, Γ, Δ, Π, 090, al ) 과 λειμα ( E, F, G, H, M,  
 S, V, al ) 가 생기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  
 되며 아람어 ϩϩ ( " 왜? " ) 을 표현한 것이다. 반면에 λημα  
 ( D, Θ, I, 22, 565, 1502, al ) 는 히브리어 ϩϩ ( " 왜? " )  
 를 표현한 것이다.

15  
 막 15: 34 에서처럼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은 아람어 (Aramaic)  
 > ϩϩϩϩ ( " 당신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 ) 을 표현하는 특별  
 ϩϩϩϩ ( " 네 " ) 이라 유사한 특별 ( ϩϩϩϩϩϩϩϩ : ϩ, A,  
 Δ, 1, 69 ; ϩϩϩϩϩϩϩϩ : B, 22, 713, 1402 ) 을 갖고 있다.  
 그러나 ( 마가의 행행본문에서처럼 ) Codex Bezae는 히브리  
 어 > ϩϩϩϩ ( " 당신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 ) 철자법에 대해  
 서는 막 15: 34의 주석을 참조하라 ) 를 표현하는 ϩϩϩϩ라  
 20  
 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본은 아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서 일부분은 히브리어 ( 첫 문어들 ) 일부분은 아람어 ( 마지막  
 단어 ) 로 쓰는 대신에 인하여 일관성있게 히브리어 원문을 표  
 현하는 문역을 철저히 제시했다. ( 막 15: 34에 대한 주석을

날 09/19/92

32\*23 = 736

→

찬조 하라)

마: 49

αὐτόν

{ B }

바룩

ἄλλος

δε

λαβῶν

λόγχην

ἐνύξεν

αὐτοῦ

τὴν

πλευράν,

καὶ

ἐξήλαθεν

ῥοδάρα

καὶ

αἷμα

란 구절은 \, B, C, L, ab 등에 의해

5

서 입증되고 있긴 하지만 요 19: 34에 있는 유사한 내용에 따

라 A 본기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구절은 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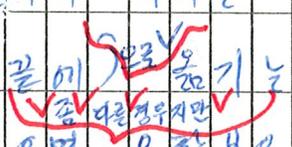
복음에 있는 순서와는 반대로 예수의 죽은 전에 창으로 찌르

는 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

10

나 2려한 순서의 차이는 이 구절을 뒤쪽 (아마 50절이나 54

절이나 60절 끝에) 옮기는 것에 대한 이유나 제공해를 분비



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 복음에 있는 구절과는 어느 정도 다르

게 변경시켰을 것이다. 오히려 어떤 독자(자신)가 키마하인 있던 요

한적인 구절 (그래서 "물과 피"란 구절의 순서에 차이가 있

는 것처럼 여러가지 사소한 차이들이 있다)을 본위에 기록해

15

넣었는데 후에 어떤 필경사가 여러쌍개로 그것을 본문에 삽입

시켜 놓은 일이 생겨났을 것이다.

마: 64

κλέψωσιν

αὐτόν

{ A }

여러개의 부

수적인 증거

차이들은

κλέψωσιν

αὐτόν

앞이나 뒤에

ν

υκτός

(표정에는

"밤에"를 해석됨)란

특별이 있다. 가장

20

큰기 것이며 가장 우수한 사본들에 이 단어가 없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마: 13에 따라 필경사들이 삽입시킨 것임을 보여줄

다.

마: 6

ἐκέστο

{ B }

ἐκέστο

의 주어를

제시한

다.

→

→

날 09/19/92

32\*23 = 736

5 10 15 20 25 30  
 것은 필립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권가시킨 것이다. 그러나 만  
 일 이 죽이가 원문에 있었다면 이 단어가 생략 되어야 할 이  
 유가 없다. 마태복음에서 *κρίσιος*란 단어는 그가 기록한 말들  
 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에게 적용된 적이 결코 없다.

☞ 5  
 대: 7 *ἀπὸ τῶν νεκρῶν* {C} 여러 개의 다

를 듣기 증거 자료들에서 마한가지로 서방 계열의 사본들에  
*ἀπὸ τῶν νεκρῶν*이란 단어들 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이  
 렷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이 단어들 을 포함  
 시키는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 증거가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이

10  
 단어들의 생략은 앞절(6절)에서 *ἠγέρθη*가 이런 단어를 없  
 이 사용되었다는 절이 자극받아서 사본 작업시에 무시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 10  
 대: 9 *καὶ ἰδοὺ* {B} 유사문의 (類似文尾: Hom

aeoteleuton) 때문에 *ὡς δὲ ἐπορεύοντο ἀπαγγεῖλαι*  
 15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καὶ ἰδοὺ*란 구절이 원문에서

할락되었다고 볼 수로 있지만, 세개의 (모든) 큰기 본문 계열(  
 알렉산드리아, 서방, 가이사라)에 속하는 가장 큰기 본문이며  
 가장 우수한 대표적인 본문들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위  
 원회는 이 구절을 앞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자연스  
 20  
 럽게 확대시킨 것으로 간주했다.

☞ 20  
 대: 17 *προσεκύνησαν* {C} 짧은 특별을 지지하

고 있는 의견 증거의 우수성이나 대명사 형태(여격, 대격, 속  
 격)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본문에서 채용한 특별을

항목

091192

32\*23=736

End of Mt

임금 채주는 큰 거가 된다.

과: 20

αἰῶνος

{ B }

Textus Receptus 가 따랐던

대부분의 사본들은 αἰῶνος 뒤에 ἄμην을 덧붙임으로

이 본문이 예전적(예베시)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이 단어가 원문에 있었다면 알렉산드리아 계열, 서방 계

열, 가이사라 계열 등에 속하는 대본집에 이 단어가 없는 이

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아래 복음 끝